

제4편

부 록

1. 2019년도 군정일지	686
2. 역대 군수(구청장) 명단	693
3. 울주군의회 의원명단	695
4. 역대 부군수(부구청장) 명단	696
5. 간부 공무원 명단	697
6. 행정기구표	700
7. 읍·면 자연마을 현황	701
8.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도시	702
9. 언론보도	703

1. 2019년도 군정일지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1.	2.	시무식	1층 알프스홀	총 무 과
	4.	신년 인사회	1층 알프스홀	총 무 과
	4. ~ 17.	제10회 울주군수배 전국 중학교 축구 스토티그 대회	간절곶스포츠파크	교육체육과
	8.	일진에너지 지정기탁금 전달식 및 건강 나눔 협약식	8층 비둘기홀	지역경제과
	10.	2019 간절곶 해맞이 행사 개최 결과 보고회	7층 이화홀	문화관광과
	19.	울주군 자율 방법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1층 문수홀	총 무 과
	22.	계약심의위원회	7층 이화홀	회계정보과
	31.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회의	8층 비둘기홀	총 무 과
2.	4. ~ 6.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각 부서	총 무 과
	8.	제1회 마을공동체 위원회	7층 이화홀	지역경제과
	12.	「대화·소통·토론」 워크숍	1층 문수홀	교육체육과
	15.	자체평가 위원회	8층 비둘기홀	기획예산실
	18.	울주군일자리지원센터 개소식	1층 일자리지원센터	지역경제과
	19.	읍·면 정월대보름 행사	전읍면	문화관광과
	26.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정기총회	7층 이화홀	문화관광과
	28.	직장동호회 끼 재능 뽐뿌데이 참가 및 우수동호회 시상	1층 문수홀	총 무 과
3.	1.	울주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울주문화예술회관	총 무 과
	5.	중부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 협약식	군수실	여성가족과
	7.	태화강생태관 언어방류 행사	태화강 생태관 (선바위교 아래)	축수산과
	8.	SNS 서포터즈 발대식	1층 문수홀	총 무 과
	14.	울주3040 부모공감 콘서트	울주문화예술회관	교육체육과
	15.	울주군 인권위원회 위촉장 전달	7층 이화홀	총 무 과
	18.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 점검 캠페인	범서고등학교 인근	안전총괄과
	19.	원전 안전 민간 합동 조사 간담회	군수실	원전정책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3.	20.	제74회 식목일 기념 군민 나무 심기 행사	온양읍 고산리 웅기문화공원 일원	산림공원과
	21.	국가안전대진단 기관장 현장점검	언양 반천교	안전총괄과
	21.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온산읍 회야강 일원	생태환경과
	29.	제28회 군민상 심사위원회	8층 비둘기홀	총 무 과
	29. ~ 31.	제3회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	작천정 벚꽃길 일원	산림공원과
	30. ~ 31.	간절곶 전국 여자 축구대회	간절곶스포츠파크	교육체육과
4.	1.	찾아가는 검진버스 「타요」 협약식	군수실	보 건 과
	2.	언양 4·2 만세운동 재현행사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3. ~ 5. 8.	민주시민교육 「차이나는 시민클래스」 정규과정 개강	1층 문수홀	교육체육과
	6.	박제상 문화제	박제상기념관	문화관광과
	9.	산재전문공공병원 입지 울주군 확정	시청 프레스센터	기획예산실
	15.	울산·부산·한수원(주) 간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체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원전정책과
	16.	울산옹기축제 최종 보고회	8층 비둘기홀	문화관광과
	17.	시장 초청 「울주인과 함께 하는 소통 대화」	1층 알프스홀	총 무 과
	20.	복지 토크콘서트	온양읍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21.	제19회 대운산 철쭉제	온양 대운산 도통굴 일원	산림공원과
	27.	제28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서생 간절곶스포츠파크	총 무 과
5.	1. ~ 3.	공무원 힐링캠프(1기)	경기도 이천시 일원	총 무 과
	2.	제1회 군민권익위원회	7층 은행나무홀	기획예산실
	3. ~ 6.	제19회 울산옹기축제	온양읍 외고산 옹기마을	문화관광과
	3.	2019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	1층 알프스홀	여성가족과
	3.	울주 프랜드 가이드 발대식	1층 문수홀	문화관광과
	5.	어린이날 행사	범서생활체육공원 등	여성가족과
	7.	혁신위원회 출범식	7층 이화홀	기획예산실
	8. ~ 10.	공무원 힐링캠프(2기)	경기도 이천시 일원	총 무 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5.	11.	언양향교 춘계 석전제 봉행	언양향교	문화관광과
	15. ~ 17.	공무원 주제별 역량 강화 교육(관광개발)	제주도 일원	총 무 과
	18. ~ 23.	울산 진하 PWA 세계원드서핑대회	진하해수욕장	교육체육과
	22. ~ 24.	공무원 주제별 역량 강화 교육(문화역사)	경기도 용인, 파주, 수원 일원	총 무 과
	25.	중부청소년수련관 개관식	중부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과
	27. ~ 30.	2019년 을지태극연습	군 청사 등	원전정책과
	31.	바다의 날 행사 기념식	장생포항	축수산과
6.	1.	복합웰컴센터 힐링 음악회	복합웰컴센터 세미나실 등	문화관광과
	4.	공직자 인권 감수성 향상 광주 5.18. 민주화운동 현장 견학	광주광역시	총 무 과
	5.	한국에너지재단 협약식	군수실	복지정책과
	13.	공약사항 보고회	7층 이화홀	기획예산실
	14.	온산다누리축제	온산 덕신소공원	여성가족과
	19.	범서 천상주차장 주민설명회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교통정책과
	21.	해수욕장 개장 추진상황보고회	8층 비둘기홀	문화관광과
	25.	삼남면장 추천 주민회의	삼남면 행정복지센터	총 무 과
	26.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식	군수실	복지정책과
	26.	울산옹기축제 평가보고회	9층 비둘기홀	문화관광과
	27.	상반기 퇴임식	1층 문수홀	총 무 과
	28.	울주군보훈회관 개관식	울주군보훈회관	복지정책과
7.	1.	민선 7기 취임 1주년 시·군·구 합동 기자회견	시 의회 프레스센터	총 무 과
	5.	진하해수욕장 개장식	진하해수욕장	문화관광과
	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층 알프스홀	여성가족과
	9.	새마을 의식개혁 수련대회	울주군민체육관	총 무 과
	9.	청량 화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준공식	청량읍 화창마을	안전총괄과
	12.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1층 문수홀	기획예산실
	15.	농촌형 모델 공공형 버스 개통식	선바위 주차장	교통정책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7.	16.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가 약정서 체결	군수실	일자리정책과
	18.	제38회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새마을운동)	1층 알프스홀	총 무 과
	18.	제12기 울주오피니언리더 교육과정 수료식	유니스트 경동홀	교육체육과
	23.	산 테마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7층 이화홀	문화관광과
	25.	천상도서관 개관식	천상도서관	도서관과
	25.	한전부산울산본부 지역농업 활성화 업무 협약	7층 은행나무홀	농업정책과
	26.	로컬푸드 농가 교육 업무 협약식	군수실	농업정책과
	26.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추진상황 보고회	7층 이화홀	문화관광과
	27. ~ 28.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해수욕장, 범서생활체육공원	문화관광과
8.	2.	울주진하해변축제	진하해수욕장	문화관광과
	3.	제8회 선바위 하하 페스티벌	범서읍 선바위교 일원	문화관광과
	8.	새울원자력본부 청량 양파 전달식	청사 1층 광장	농업정책과
	10.	간절곶 해오름 가요제	간절곶	문화관광과
	12.	읍면별 특색 있는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회	7층 이화홀	총 무 과
	12.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개장식	울리원에농협	농업정책과
	12.	국공립 어린이집 협약식	7층 이화홀	여성가족과
	13.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공식 기자회견	시청 프레스센터, 서울 명동 CGV	문화관광과
	26.	우수시책 발표회	1층 문수홀	기획예산실
	29.	울주군 해양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1층 문수홀	문화관광과
	30.	제4차 울산옹기축제 추진위원회	8층 비둘기홀	문화관광과
9.	3.	울주 영상미디어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7층 이화홀	문화관광과
	4.	군민감사관 간담회	8층 비둘기홀	기획예산실
	5.	청림 콘서트	1층 알프스홀	기획예산실
	6.	제20회 이장 한마음 전진 대회	서생체육공원	총 무 과
	6. ~ 10.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북합웰컴센터	문화관광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9.	7.	울주인 한마당	복합웰컴센터	문화관광과
	9.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울주경찰서	총 무 과
	9.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MOU 체결	울산암각화박물관	문화관광과
	12. ~ 15.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각 부서	총 무 과
	17.	제4차 울산옹기축제 추진위원회	8층 비둘기홀	문화관광과
	20.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개소식	삼남면 서울산IC 인근	축수산과
	20.	농업경영인 대회	범서생활체육공원	농업정책과
	21.	울주군민 100인 원탁토론회	1층 문수홀	기획예산실
	21.	애향 콘서트	연양향교	문화관광과
	23.	울주영상미디어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7층 이화홀	문화관광과
	26.	카페 꿈 협동조합 마을기업 개소식	청량 쌍용하나빌리지	일자리정책과
	27.	주민자치 화합의 한마당	청량운동장	총 무 과
	28.	복지박람회	범서생활체육공원	복지정책과
	28.	울주3040 부모공감 콘서트	1층 알프스홀	교육체육과
	28.	울산 전국 직장인 동호인 밴드 페스티벌	작정정 입구	문화관광과
	29.	제17회 울주군 자율 방법연합회 한마음 전진 대회	온산운동장	총 무 과
10.	2.	민원안내 로봇 시연회	1층 로비	기획예산실
	3.	울주 오디세이	울주문화예술회관	문화관광과
	5.	울주문화원 울주 민속놀이 한마당	웅기마을	문화관광과
	5.	오영수 문학관 누나별 북 콘서트	오영수문학관 야외무대	문화관광과
	7.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울주군유치위원회 발대식	1층 알프스홀	농업정책과
	11.	울산 배 축제 개막식	원예농협하나로마트	농업정책과
	12.	울주 음식문화축제	범서생활체육공원	위 생 과
	12.	울주민속놀이 한마당	울주민속박물관	문화관광과
	14.	제20회 이장한마음 전진대회	간절곶스포츠파크	총 무 과
	14.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	8층 비둘기홀	산림공원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10.	17.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7층 이화홀	총 무 과
	19.	울주군 지역 아동센터 별빛축제	울주군민체육관	여성가족과
	20.	제2회 친환경 울주 나눔장터 운영	구영공원	생태환경과
	23.	S-oil 울산복지재단 온산 우렁이 농법 조곡 수매행사	온산농협경제사업소	농업정책과
	25.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구축·운영 협약 체결	군수실	건 축 과
	28. ~ 29.	안전한국훈련 화재대피훈련	청사 군민광장	회계정보과
	29.	S-oil 희망 나눔 박스 푸드뱅크마켓 전달식	1층 문수홀	복지정책과
	30.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차별 금지 교육	1층 알프스홀	노인장애인과
	31.	울산 합동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	동천체육관	일자리정책과
11.	1.	사랑의 한우 나눔 행사	청사 1층	축수산과
	6.	연어 생태 교육 체험 행사	태화강생태관	축수산과
	8.	숲 가꾸기 행사	웅기문화공원	산림공원과
	10.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태화강 둔치	농업정책과
	11.	군 금고 약정 체결식	군수실	세무1과
	11.	덕하 유흥가 공영주차장 준공식	덕하공영주차장	교통정책과
	12.	보훈4단체 위안 행사	언양 63뷔페	복지정책과
	12.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1층 알프스홀	복지정책과
	13.	한국자유총연맹 제65주년 창립기념 및 국리민복실천결의대회	울주군민체육관	총 무 과
	13.	울주군과 롯데 삼동이 함께 하는 김장 나누기	롯데백화점 광장	복지정책과
	13.	제9기 군민감사관 위촉식	7층 은행나무홀	기획예산실
	14.	하반기 공직자 특강	1층 알프스홀	총 무 과
	15.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운영 위탁 협약식	7층 은행나무홀	위 생 과
	19.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업무 협약	시청 7층 상황실	교육체육과
	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7층 이화홀	농업정책과
	22.	울주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울주문화예술회관	문화관광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11.	24.	제6회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언양 63뷔페	여성가족과
	29.	대형아파트 주민과의 대화 처리결과 보고회	7층 이화홀	총 무 과
	29.	울주농수산물도매시장 울주군 이전 최종 확정	시청 프레스센터	농업정책과
	30.	울주군 자원봉사 대축제	1층 문수홀	복지정책과
12.	5.	온양 대안1·2교 및 솔밭길 통로 박스 개통식	온양 대안2교	교통정책과
	5.	울주군~울산역 업무협약체결	군수실	문화관광과
	6.	신고리 3·4호기 종합 준공행사	새울원자력본부 인근	에너지정책과
	9.	웅기마을 명소화 착수 보고회	8층 비둘기홀	문화관광과
	11.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회	1층 문수홀	일자리정책과
	13.	제11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1층 알프스홀	총 무 과
	18.	2020 간절곶 해맞이 행사 최종 보고회	7층 이화홀	문화관광과
	18.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약식 및 간담회	군수실	여성가족과
	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보고회	1층 알프스홀	복지정책과
	20.	드림스타트 업무협약체결 및 감사패 수여	7층 은행나무홀	여성가족과
	2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졸업식	삼남 서부청소년 수련관	여성가족과
	23.	울주군 공무원 원탁토론회	1층 문수홀	기획예산실
	24.	민원친절 작은 축제	1층 로비 및 민원실	민원지적과
	26.	일진에너지 건강 나눔 협약식	8층 비둘기홀	노인장애인과
	26.	6차 산업 융역 최종 보고회	7층 이화홀	농업정책과
	26.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친선 방문	7층 이화홀	총 무 과
	27.	공무직 정년퇴직 공로패 및 기념품 전달	8층 비둘기홀	총 무 과
	27.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 개소식 및 간담회	3층 통합민원실	세무2과
	30.	하반기 퇴임식	1층 문수홀	총 무 과
	31.	종무식	1층 알프스홀	총 무 과
	31.~'20.1.1.	2020년 간절곶 해맞이 행사	서생 간절곶 일원	문화관광과

2. 역대 군수(구청장) 명단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1	최 동 용	1945. 10. 24.	1946. 11. 17.	1년
2	유 태 경	1946. 11. 18.	1947. 3. 31.	4월
3	오 주 석	1947. 4. 1.	1949. 6. 20.	2년 2월
4	이 박 규	1949. 6. 21.	1950. 5. 5.	10월
5	박 재 현	1950. 5. 6.	1950. 7. 22.	2월
6	강 병 수	1950. 7. 23.	1951. 8. 31.	1년 1월
7	이 희 득	1951. 10. 5.	1953. 1. 5.	1년 3월
8	김 인 제	1953. 1. 6.	1953. 7. 6.	6월
9	이 백 순	1953. 7. 7.	1954. 12. 1.	1년 4월
10	김 극 수	1954. 12. 2.	1956. 11. 5.	1년 11월
11	장 병 구	1956. 11. 6.	1957. 4. 28.	6월
12	서 석 지	1957. 5. 30.	1958. 3. 14.	9월
13	조 창 제	1958. 3. 15.	1960. 5. 24.	2년 2월
14	윤 덕 병	1960. 5. 25.	1960. 9. 13.	1년 3월
15	정 명 철	1960. 11. 29.	1961. 6. 17.	7월
16	김 철 년	1961. 6. 18.	1962. 11. 11.	1년 4월
17	김 현 규	1962. 11. 12.	1964. 1. 31.	1년 2월
18	김 종 구	1964. 2. 1.	1965. 3. 31.	1년 2월
19	이 진 섭	1965. 4. 1.	1966. 9. 30.	1년 6월
20	이 태 수	1966. 10. 1.	1968. 4. 28.	1년 7월
21	한 형 구	1968. 5. 1.	1971. 8. 20.	3년 3월
22	박 용 범	1971. 8. 21.	1973. 6. 30.	1년 10월
23	한 영 규	1973. 7. 1.	1974. 4. 22.	9월
24	한 형 구	1974. 4. 23.	1974. 12. 31.	8월
25	황 길 태	1975. 1. 1.	1976. 3. 30.	1년 3월
26	김 영 환	1976. 4. 1.	1978. 8. 1.	2년 4월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27	조 상 래	1978. 8. 2.	1979. 10. 15.	1년 2월
28	조 규 섭	1979. 10. 16.	1980. 3. 16.	5월
29	황 대 영	1980. 3. 17.	1981. 12. 22.	1년 9월
30	박 필 용	1981. 12. 23.	1983. 4. 13.	1년 3월
31	손 태 병	1983. 4. 14.	1985. 3. 10.	1년 11월
32	김 종 학	1985. 3. 11.	1986. 2. 27.	11월
33	박 지 근	1986. 3. 8.	1988. 6. 10.	2년 3월
34	이 승 관	1988. 6. 11.	1989. 12. 26.	1년 6월
35	김 명 규	1989. 12. 27.	1992. 4. 22.	1년 4월
36	김 진 백	1992. 4. 23.	1993. 3. 28.	11월
37	황 기 준	1993. 3. 29.	1993. 12. 20.	9월
38	김 수 영	1994. 1. 3.	1994. 12. 31.	1년

■ 울주구청장 및 군수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1	배 경 석	1995. 1. 1.	1996. 3. 1.	1년 2월
2	손 달 인	1996. 3. 2.	1997. 6. 30.	1년 4월
군수직무대행	허 선 호	1997. 7. 15.	1998. 6. 30.	1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선군수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초대민선군수	박 진 구	1998. 7. 1.	2002. 6. 30.	4년
민선2대 군수	엄 창 섭	2002. 7. 1.	2006. 6. 30.	4년
민선3대 군수	엄 창 섭	2006. 7. 1.	2008. 9. 25.	2년 3월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민선4대 군수	신 장 열	2008. 10. 30.	2010. 6. 30.	1년 8월
민선5대 군수	신 장 열	2010. 7. 1.	2014. 6. 30.	4년
민선6대 군수	신 장 열	2014. 7. 1.	2018. 6. 30.	4년
민선7대 군수	이 선 호	2018. 7. 1.	현재	

3. 울주군의회 의원명단

의 원		선 거 구
구 분	성 명	
의 장	간정태	다 선거구
부 의 장	김상용	가 선거구
의회운영위원장	정우식	다 선거구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성	가 선거구
경제건설위원장	김시욱	나 선거구
의원	한성환	가 선거구
의원	박정옥	나 선거구
의원	송성우	나 선거구
의원	허은녕	다 선거구
의원	경민정	비례대표

※ 가 선거구 : 온산, 온양, 서생, 웅촌 나 선거구 : 범서, 청량 다 선거구 : 연양, 삼남, 상북, 두동, 두서, 삼동

4. 역대 부군수(부구청장) 명단

대순	성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비고
1	허완	1975. 1. 10.	1976. 3. 31.	2년 3월	
2	김형기	1976. 4. 1.	1978. 5. 19.	2년 2월	
3	정임준	1978. 5. 20.	1981. 9. 30.	3년 4월	
4	최상향	1981. 10. 1.	1982. 11. 3.	1년 1월	
5	김은석	1982. 11. 4.	1987. 9. 22.	4년 10월	
6	김태일	1987. 9. 23.	1991. 9. 30.	4년	
7	윤종진	1991. 10. 1.	1993. 6. 18.	1년 9월	
8	장병한	1993. 6. 19.	1994. 9. 30.	1년 3월	
9	서진철	1994. 10. 17.	1994. 12. 31.	2월	
10	한용규	1995. 1. 1.	1995. 1. 24.	1월	부구청장
11	김장욱	1995. 1. 25.	1995. 7. 24.	6월	"
12	이수길	1995. 8. 4.	1997. 1. 28.	1년 6월	"
13	이철호	1997. 1. 29.	1997. 7. 14.	6월	"
14	허선호	1997. 7. 15.	1998. 9. 25.	1년 2월	군수직무대행 '97. 7. 15. ~ '98. 6. 30.
15	유병래	1998. 9. 26.	2000. 1. 23.	1년 4월	
16	심부용	2000. 1. 24.	2001. 1. 8.	1년	
17	최문규	2001. 1. 9.	2002. 7. 30.	1년 7월	
18	유병래	2002. 8. 1.	2003. 7. 7.	11월	
19	허종생	2003. 7. 8.	2005. 1. 26.	1년 7월	
20	이성섭	2005. 1. 27.	2005. 12. 31.	1년	
21	이선범	2006. 1. 12.	2007. 6. 29.	1년 6월	
22	신장열	2007. 7. 20.	2008. 9. 30.	1년 2월	
23	박정식	2008. 10. 2.	2009. 12. 31.	1년 2월	
24	이효재	2010. 1. 8.	2011. 1. 31.	1년	
25	허만영	2011. 2. 2.	2012. 7. 2.	1년 5월	
26	전병수	2012. 7. 3.	2013. 6. 30.	1년	
27	한진규	2013. 7. 3.	2015. 12. 31.	1년 6월	

대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비 고
28	장 한 연	2016. 1. 1.	2016. 12. 31.	1년	
29	이 경 걸	2017. 1. 1.	2017. 12. 31.	1년	
30	조 한 희	2018. 1. 1.	2019. 1. 3.	1년	
31	김 지 태	2019. 1. 4.	2019. 12. 31.	1년	
32	서 석 광	2020. 1. 1.	현재		

5. 간부 공무원 명단

가. 본청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군 수		정 무 직	이 선 호	2018. 7. 1.
부 군 수		지방부이사관	김 지 태	2019. 1. 4.
행정지원국장		지방서기관	김 상 일	2019. 7. 1.
복지교육국장		지방서기관	김 동 렬	2019. 7. 1.
경제산업국장		지방서기관	안 효 신	2019. 7. 1.
도시환경국장		지방서기관	임 덕 철	2019. 1. 1.
안전건설국장		지방기술서기관	하 종 섭	2019. 7. 1.
기획예산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경 례	2019. 7. 1.
행정지원국	총 무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성 우	2018. 7. 26.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미 희	2019. 7. 1.
	회계정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공 열	2019. 1. 1.
	세무1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윤 하	2019. 7. 1.
	세무2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은 경	2019. 7. 1.
	민원지적과장	지방시설사무관	한 기 권	2018. 7. 26.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복지교양국	복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유 석	2019. 7. 1.
	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무관	김 종 호	2019. 7. 1.
	여성가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순 옥	2019. 7. 1.
	교육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백 진 백	2019. 7. 1.
	도서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봉 대	2019. 1. 1.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미 혜	2019. 7. 1.
	일자리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주 보 령	2019. 7. 1.
	에너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용 완	2019. 7. 1.
	농업정책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최 용 식	2019. 3. 21.
	축수산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신 종 언	2019. 7. 4.
도시환경국	도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정 재 문	2017. 7. 1.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정 동 옥	2019. 1. 4.
	생태환경과장	지방환경사무관	강 외 정	2019. 1. 4.
	산림공원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조 지 숙	2019. 1. 4.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동 원	2019. 7. 1.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종 칠	2019. 7. 1.
	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영 수	2019. 7. 1.
	도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박 창 근	2018. 1. 1.
	교통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문 지 영	2019. 7. 1.
	시설지원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박 재 만	2019. 1. 4.

나. 보건소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보 건 소 장	지방기술서기관	최 우 영	2017. 1. 1.
보 건 과 장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이 영 숙	2016. 7. 1.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지방보건사무관	김 동 숙	2017. 7. 1.

다. 읍면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범 서 읍 장	지방서기관	심 성 보	2019. 7. 1.
범서읍 민원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안 지 연	2019. 3. 21.
범서읍 생활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변 희 석	2019. 7. 1.
온 산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갑 식	2019. 1. 1.
언 양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철 봉	2019. 7. 1.
온 양 읍 장	지방농업사무관	한 동 훈	2018. 7. 26.
청 량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왕 운	2019. 1. 1.
서 생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은 재	2019. 1. 1.
웅 촌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동 술	2019. 7. 1.
두 동 면 장	지방농업사무관	장 명 기	2019. 7. 4.
두 서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득 선	2019. 1. 1.
상 북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창 만	2019. 3. 21.
삼 남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형 석	2019. 7. 1.
삼 동 면 장	지방농업사무관	박 성 화	2019. 7. 1.

라. 의회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의회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오 세 윤	2019. 7. 1.
전 문 위 원	지방행정사무관	최 병 수	2018. 4. 1.
전 문 위 원	지방농업사무관	정 왕 식	2019. 7. 4.
전 문 위 원	지방행정주사	이 지 혜	2019. 7. 12.

6. 행정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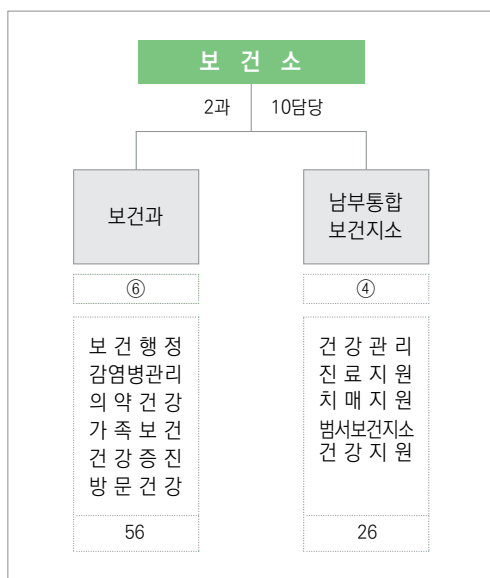
구분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읍·면
기구		5국 27실과 123담당	1국 2담당 3전문위원	1과 1소 10담당	12읍면 60담당
정원	1,015	672	19	82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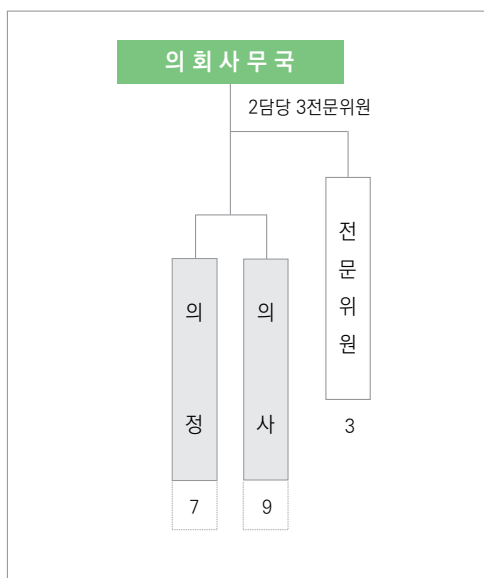
■ 음·면

읍면	계	범서	온산	언양	온양	청량	서생	웅촌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
담당	60	8	6	6	6	6	4	4	4	4	4	5	3
정원	242	40	25	26	24	21	16	15	14	14	15	19	13

■ 직속기관



■ 의회사무국



7. 읍·면 자연마을 현황

읍면별	면적 (km ²)	가 구 (세대)	인 구 (명)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수)	법 정 리 명
5읍7면	758.13	93,959	223,167	118 (376)	462 (2,075)	
범서읍	77.08	24,525	71,466	10 (68)	62 (622)	서사, 척과, 두산, 구영, 중리, 망성, 사연, 입암, 천상, 굴화
온산읍	40.45	10,329	20,681	13 (38)	14 (138)	당월, 우봉, 가양, 삼평, 원산, 대정, 이진, 화산, 덕신, 산암, 방도, 처용, 학남
언양읍	68.72	11,854	28,430	15 (42)	43 (299)	송대, 서부, 동부, 남부, 어음, 반송, 구수, 반천, 반연, 대곡, 반곡, 평기, 다개, 태기, 직동
온양읍	64.28	11,846	28,850	10 (43)	47 (276)	남창, 동상, 망양, 고산, 삼광, 내광, 외광, 운화, 대안, 발리
청량읍	59.95	8,195	19,293	9 (32)	48 (211)	상남, 개곡, 덕하, 문죽, 울리, 삼정, 중리, 동천, 용암
서생면	36.88	4,315	8,531	10 (22)	25 (76)	신암, 명산, 화산, 위양, 용리, 서생, 화정, 진하, 대송, 나사

읍면별	면적 (km ²)	가 구	인 구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수)	법 정 리 명
웅촌면	51.64	3,975	7,865	9 (27)	27 (91)	곡천, 검단, 은현, 고연, 대대 초천, 통천, 석천, 대북
두동면	63.33	2,286	4,181	8 (15)	33 (42)	은편, 만화, 구미, 월평, 삼정 봉계, 천전, 이전
두서면	78.86	1,788	3,144	9 (17)	40 (42)	인보, 서하, 구량, 차리, 내와 복안, 활천, 미호, 전읍
상북면	123.58	3,970	7,984	13 (22)	58 (88)	산전, 지내, 향산, 천전, 등억알프스 명촌, 길천, 거리, 양등, 궁근정 소호, 덕현, 이천
삼남면	31.01	9,858	20,914	5 (34)	37 (165)	교동, 신화, 상천, 가천, 방기
삼동면	62.35	1,018	1,828	7 (16)	28 (25)	조일, 보은, 금곡, 하잠, 출강 작동, 둔기

8.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도시

구 분	외국도시명	체결일자	교류종류
자매결연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레피즈시	1987. 8. 19.	자매결연
	전라남도 여수시	2009. 10. 29.	자매결연
	중국 무석시 회시산구	2019. 4. 9.	자매결연
우호협력	중국 래서시	2000. 7. 26.	협정서
	중국 문등시	2001. 12. 14.	협정서
	중국 판진시	2003. 2. 19.	의향서
	중국 심북신구	2003. 3. 21.	의향서
	중국 해림시	2004. 9. 3.	의향서
	일본 대마시	2005. 11. 15.	협정서
	포르투갈 포초코아시	2016. 7. 5.	의향서
	스페인 살라망카시	2016. 11. 2.	의향서
	포르투갈 신트라시	2017. 12. 10.	우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코 트르제비치시	2018. 6. 18.	우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베트남 화빈성	2019. 7. 3.	협정서

9. 언론보도

경상일보

2019년 1월 4일 금요일 002면 중합

울주군 2022년까지 일자리 2만4027개 창출

일자리로 희망 주는 울주 비전
민선 7기 일자리 종합계획 공개

공공근로사업등 94개 사업 통해
1만6763명에 일자리 직접 제공

3D프린팅 전문 인력 양성등
144명 대상 직업능력 개발훈련

울주군이 울기마을 운영과 3D프린팅 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2022년까지 2만4000여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군은 3일 '일자리로 희망을 주는 울주'가 비전인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지자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정책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지역 고용 활성화 정책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일환이다.

군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개 분야 140개 세부사업을 펼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인프라 확대를 통해 4년간 일자리 2만4027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4년간 투입되는 국비와 시비 및 군비는 각각 488억원과 510억원, 1504억원 등 총 2482억원에 달한다.

군은 관내 지리와 인구, 산업 구조, 고용 등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

기로 했다.

직접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 기초통계조사 및 지역통계조사, 진하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사업 등 94개 사업을 추진해 1만6763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3D프린팅 운용 전문인력 양성 및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 농업용 드론 전문인력 육성,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실 등 6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해 144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고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 부문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해 3124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창업 지원 및 일자리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회경제적 아카데미 운영, 청년창업 및 퇴직세대 귀농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 33개 사업을 추진해 4019명의 일자리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인구 30만 목표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6차 산업 전라지구 지정 및 개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 △노년일자리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발굴 확대 △고소득 특화 농산물 육성 및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등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봉기자 bong@ksilbo.co.kr

경상일보

2019년 1월 7일 월요일 002면 중합

郡, 전국 유일 '이재민관리시스템' 국내외 판매

방사능 비상사태 발생시
이재민 관리 위해 개발

KOICA와 협력해 수출 추진
국내 지자체들 문의도 쇄도

울주군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이재민관리시스템을 국내외에 판매한다. 판매 수익으로 인한 세수 증대는 물론 선진시스템 전파로 군 위상 강화 및 국위선양 효과도 기대된다.

6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KO

ICA(한국국제협력단)와 협력해 이재민관리시스템 수출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군이 IT서비스 제공업체인 SQ&T와 협력, 방사능 비상사태 발생 시 가동되는 구조소 이재민 관리 위해 구축한 것이다. 군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장기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했다.

수출 대상은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등 체계적인 이재민·난민 관리가 필요한 국가다. 군은 대상 국가들이 전산시스템 미비로 이재민 등의 인적사항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 KOICA와 접촉해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부에 사업을 제안해 심사 및 예산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수출 대상국을 현지 방문해 수출을 추진한다.

국내 판매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등을 통해 시스템의 효용성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광역·기초 지자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방사능 비상사태는 물론 지진 및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운영하는 구조소에도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2017년 지진 당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구조소 운영에 애를 먹었던 포항은 물론, 경남 양산시와 경북 울진군,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 등이 관심

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일괄 구입해 관내 기초지자체에 배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준봉기자



이재민관리시스템=수기로 이재민 정보를 작성·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활용해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물론, 홍재와 지진까지 이용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서류 가방 크기의 소형 이재민관리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서버 역할을 해 구조소 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

이선희 군수, 셋째 아기 출산 가정에 장려금 500만원

범서읍 천상 2남 1녀 양육 부부
10만원 상당 축하용품도 전달
“아이들 웃음소리 피어나기를”

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 4일 울산 미즈병원을 방문해 셋째 아기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50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축하 용품을 전달했다.

주인공은 뱀서읍 천상에 살고 있는 부부
로 2남 1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 군수는 "저출산 사회 분위기 속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피어나길 바란다. 아이를 안전하고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게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출산장려금 확대와 출산축하
용품 지원을 비롯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



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 4일 울산 미즈병원을 방문해 셋째 아기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과 축하 용품을 전달했다.

조참훈기자 usich@

“결혼·출산·양육 집중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 건설”

■ 울주군, 새해 주요 정책

출산장려금 확대·아간 키즈카페
울산 최초 유치원 무상 급식 시작
청년 인턴사업 취업시 급여 지원
학술·주변 편의 다양한 정책 추진

술산 읍주군은 술에 관한 7개의 핵심 목표인 '다이어 키우기 좋은 읍주' 만들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결혼과 술산 지역 정착을 비롯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했다.

● 신혼부부 2인당 주거비용 지원
군은 출산장려금이 읍·면마다 확대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
차등 지급한다. 첫째 50만 원, 둘째 20
만 원, 셋째 이상 50만원이다. 첫째아이
출산가정에서는 소목과 관계없이 건강
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정착을 위한 정책도 준비될

신혼부부 정착을 위한 정책도 준비했



여선호 일주군은 "이제 '알려 산구 사책'을 통해 군민들의 삶에,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고 내년 목표를 밝혔다.

다. 지난해 말 현재로 읍면군에 67명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친권부부에게 2년간 소득에 따라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임신부와 단일부부 진료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신부의 경우 15주까 속한 달부터 출산까지 산전 진료 시, 단일부부는 임신 확인 일까지 1회 5만 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4월부터는 야간 키즈카페가 운영된

다.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0세에서 5세 영유아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다.

3월부터 공공음악이냐는지가 운영된다. 맞춤형 연주 헌부모, 다양한 가성의 불꽃이 필요한 초음파생이든 이용할 수 있다. 보호와 학습, 문화 프로그램을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불꽃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에 시작한다. 읍면광역시 구·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밖에도 2월부터 어린이집 미세먼지 농도상 설치비를 지원한다. 읍·군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다.

● **취가기** : 가정·사업장·유흥·관리
같은 가정학과서 이론, 자살, 자살 등 위
기와 같은 가족 문제에 나타난다. 위가
기와 심리 경제적 자립과 사회관계 등을
자립한다.

● **여성청소년 보건의료비용** : 배우자 지
원을 제공한다. 2008년부터 2008년 사이
출생자로 병원 진료비이거나 착상된 계
통에서 자립 받을 수 있다.

● **군대 지원** : 군대 생활은 중산층이나 소

▶ 장단대·응답단을 직업능력교육
군은 중소기업 청년 인턴ship을 시행한
다. 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
만 마취과/간·내과 계열장학을 등(상지
교수 5명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업과 인연에 걸쳐 지원한다.
또 군에 주둔중이 되어있는 군관을
선교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에 24개월 동안 임금보조 지원을
제공한다.

재작업을 위해 취업단절여성이나 중장년을 40세 이하의 대상으로 현장중심형 직업능력향상교육을 3월부터 진행한다. 군에 신청하거나 증설,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연중 실시한다. 관내 투자액 10억 원 이상, 상시고용 15명 이상인 기업은 일지보조금과 사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만 군민 삶의 질 개선 총력”
올해부터 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
등학생에게 EBS 스마트 리스닝 영어학

습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서울 강남구 청 연대초 수능방송 연회대 참여를 지원하고, 생활여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3학년생 대상으로 청년 장학금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강진너스가 8월부터 11월까지 읍·면·동을 돌며 운영된다. 동물과 전염병 예방, 골다공증 등 무료로 진단할 수 있다. 중부 청소년수련관은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다목적공연장과 동아리방, 상담실, 직업 체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여 외에도 3월부터 생활불편신고원을 운영한다. 대상은 연도나 횡단보도에 5분 이상 주정차할 차량으로 스매프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촬영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다. 민영위교육 통지서를 모체로 발송하고, 민영위교육 참석 시 전 자동차주서를 비교정보 인식에 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 군수는 “음해 신규 시책이 우리 군에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만 군민들의 삶에,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나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電話: 02-2658-5888

울산제일일보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007면 사회

울주군, 교육지원 예산 113억원 편성

작년보다 6억여원 증가 전국 최상위권... 교육복지 구현 중점 투자

울산시 울주군이 2019년도 교육지원 예산에 전국 최상위권 규모로 전년 대비 6억여원 늘어난 113억원을 편성했다.

9일 울주군은 지역 내 초·중·고, 유치원에 지원하는 2019년 교육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6억여원 늘린 11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은 울주군 민선 7기 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와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결정됐다.

교육지원 중점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에 58억원(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 친환경 식재료, 화

교별 교육경비 지원 등) △미래 인재 양성에 3억6천만원(강남구청 인터넷 강의와 EBS영어 스마트스쿨 인터넷수강료 지원, 청소년 영어캠프, 영어스피치 대회, 울주군 청소년 과학페스티벌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에 1억4천만원(오피니언 리더 교육과정, 창의·재능학교 운영, 인성·감성 교육, 청소년 진로 탐색교육 등) △유니스트 발전기금으로 50억원 등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인 교육 정책을 배치했다.

울주군은 이번 예산 편성 사업 외에도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

고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지역 내 초등학교 30개소 1만3천851명, 중학교 14개소 6천249명, 고등학교 13개소 7천250명, 유치원 2천588명 등 3만명 가까이 이르는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생활이 어려운 지역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명을 선발해 1인당 장학금 70만원을 지급하는 '울주군 청년 장학금'사업도 실시한다.

이선호 군수는 "울주군의 교육지원 예

산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이라 자부한다. 교육이야말로 우리군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 생각하고 교육청, 학교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 분야에 전폭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곧 울주군을 위한 백년대계임을 마음속에 새기겠다. 지속해서 교육 사업을 확대 지원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 명실상부 교육특구 울주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울산매일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002면 종합

울주군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 전면 시행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 만들기

유아 동반 민원인·노약자 이용 가능

울주군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를 읍·면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 창구를 군청과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개설해 임산부는 물론 유아 동반 민원인, 노약자, 장애인 민원을 우선 처리한다.

이에 따라 임산부 등의 민원서류 신청 발급, 여권 접수 등이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군 관계자는 "울산에서 일부 기초단체가 분청 민원실에 임산부 민원창구를 설치한 적 있지만 일선 읍·면까지 설치한 것은 울주군이 처음"이라며 "이 창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임신·출산 장려와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zi0611@usm.co.kr

경상일보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006면 사회

선바위교에 울산 첫 교량분수·조명 설치

郡, 선바위교 경관개선 용역 생태관동 연계 볼거리 조성 상징조형물 조성 등 우선 추진 예산 확보 분수 등 순차 설치

울산 울주군이 선바위교에 음악이 나오는 교량분수와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등 경관개선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선바위교가 지역의 명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은 '범서 선바위교 경관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08년 준공한 선바위교의 외관을 정비하고 인근 태화강생태관 및 선바위공원 등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 울주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상징성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 선바위교를 랜드마크화한다. 용역비는 1억6400만 원이며 이달 말에 용역에 착수해 7월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교량 펜스와 가로등 등에 대한 경관화 리모델링에 착수하고 상징 조형물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볼거리 제공 및 경관 거점화를

위해 음악이 나오는 교량분수와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조명과 분수의 길이는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160m 구간에서 걸쳐 설치된다. 달빛무지개분수로 유명한 서울 반포대교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교량분수를 설치한 적은 있지만 울산에서는 처음이다.

군은 선바위교를 관리하는 울산시와 협의해 구조안전 개선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관건은 분수에 공급할 유수 확보다. 인근의 수량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지만 수심이 얕은 만큼, 침전물을 거르고 유수수를 채울 수 있는 별도의 저수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사업예산 50억원을 편

성했다가 33억원이 삭감되고 확보된 17억원으로 용역과 상징조형물 조성 등을 우선 추진한다. 군의회도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부분 삭감했던 만큼 나머지 사업비는 올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서 확보해 분수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를 부여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용역과정에서 범서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현재로서는 선바위교가 대상지로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준봉기자 bong@ksilbo.co.kr

울산옹기축제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2017·2018년 경제부문 대상 이어
장날 테마로 구성한 프로그램 호응
울주군, 5월 3-6일 4일간 개최 예정

울산 울주군은 지난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의 2019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울산옹기축제가 '축제 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옹기축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축제 경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옹기장날이라는 테마로 구성되는 울산옹기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향후 울산옹기축제가 경쟁력 높은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 문화관광축



2019 제7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울산옹기축제-축제콘텐츠 부문 대상 수상

2019. 2. 22(금)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울주군 울산옹기축제가 지난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 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제로 성장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9 울산옹기축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의고산 옹기마을 일원에서 공연, 전시, 체험,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조창훈기자 usjch@

울주군, 신혼부부 2년간 월 5~9만원 주거비용 지원

2018년 혼인신고·6개월 이상 거주
부부합산소득 중위 200% 이하 대상

울산 울주군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2년간 월 5~9만 원을 차등 지원 받게 된다.

접수는 3월 4일부터 시작되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일 직전 달까지의 서류만 효력이 인정되며 통장을 제외한 모

든 서류는 전국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및 구·군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지원 여부를 가릴 소득조사는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금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진행되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 여성가족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조창훈기자 usjch@



울산 울주군은 18일 범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이선호 군수와 관내 소상공인,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읍·면별 특색있는 주민과의 대화' 첫 순서로 범서읍민과의 대화를 열었다.

군, 읍·면별 특색있는 '주민과의 대화'

주민들이 선정한 현안 문제

다양한 의견 들으며 6개조 나눠

군수와 직접 토론회로 풀어

100인 원탁토론회 및 열린군수실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

는 울주군이 토론회 정책 제안이 동반되는 특색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있어 군정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울주군은 18일 범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이선호 군수와 시·군의원, 관내 소상공인,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읍·면별 특색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열었다. 이 행사는 주민건의사항 청취 위주였던 기존 주민과의 대화 대신, 주민이 직접 선정한 지역현안에 대해 군수와 주민이 직접 토론회하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화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들'

(학부모), '경제를 살리는 사람들'(소상공인),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등 6개 조로 나눠 진행했다. 군은 참가자들이 임시 범서읍 의원이 돼 책임있게 정책을 제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원 배치를 재작해 배부했다.

1부에서는 범서생활체육공원 상설무대 설치와 굴화·장검지역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상설무대 설치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대 설치에 따른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과 소음에 따른 민원 검토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이 아닌 범서 전체를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시계 형태의 상징물이 들어선 광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쉬고 이야기하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의견과, 범서 수변공원 조성 시 주민 친화 시설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제시됐다.

이준봉기자 bong@ksilbo.co.kr

울산매일

울주군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 본격화

온양읍 동상리 8,392㎡부지 건립

210억 투입 2021년 완공 목표

재심의 처분으로 건립계획이 늦춰졌던 울주군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온양읍 동상리에 부지면적 8,392㎡, 연면적 5,2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남부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는 210억원이며 착공과 완공 목표는 각각 2019년과 2021년이다. 군은 이 수련관에 수영장, 공연장, 교육실, 동아리방, 직업체험실 등을 갖춘 계획이다.

시설 규모에서는 지하2층에서 1층 구

모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온양읍 동상리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에서 조건부로 재검토할 것을 결정하면서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늦어지게 됐다.

당시 위원회는 온양읍 동상리 1222-11 등 4필지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설 경우 사유지인 인접부지 1필지가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남게 돼 토지 이용이 불가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필지를 수련관 사업 부지에 포함시키는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울주군은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거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008면 사회

친 뒤 최근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위원회에서 제기된 맹지를 사업 부지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모두 수용하며 수련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됐다.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기차 이르면 올해 10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추진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2022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울주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남부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 울주군 지역에는 서부와 중부 등 세곳의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된다.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서부청소년수련관은 2009년 문을 열었고, 중부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월 범서읍 구영리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인근에 부지면적 2,842.40㎡, 연면적 2,915.4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으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김성아 기자 lawyer405@usm.co.kr

*울산매일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006면 사회

울주군 CCTV관제센터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새벽 차량털이범 발견 신고
올해 226건 모니터링 처리

울산시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죄와 사고 예방에 한몫하며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3시 49분께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온산을 공원 외곽

에서 차량털이범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 조사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월부터 온산을 일대에서 새벽에 자주 목격된 용의자가 이날도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것으로 보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다 신고했다.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들어 공원 등에서 청소년 음주·흡연·폭

력, 쓰레기 불법 투기, 차량 뺑소니 등 226건을 모니터링해 처리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CCTV 5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해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사회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16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김상아 기자

*울산매일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007면 사회

울주군,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확대...소비자 신뢰 높인다

토양·수질 등 220건...전년비 70건↑

울주군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울주 로컬푸드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를 전년도 150건보다 46% 증가한 220건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는 생산단계의 토양 및 수

질검사 70건 외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진열돼 있는 출하농산물에 대한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150건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검사기관인 아이센쥬에 의뢰, 잔류농약 320가지 성분과 중금속 2가지 성분(Pb 납, Cd 카드뮴)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성분 1회 검출 시 2개월 출하정지, 2회

검출시 4개월 출하정지, 3회 검출 시에는 매장에서 퇴출시킨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고 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까지 연계한 6차 산업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울주군, 지역 첫 '읍·면장 주민추천제' 실시

(주민대표들이 읍면장 선출하는 제도)

삼남면 시범지역으로 선정
200명 규모 투표인단 선발
주 신청자 6급 주무관 예상

울산 울주군이 지역 최초로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한다. 주민 현안에 공감하고 지역 발전 및 운영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주민들이 읍·면장으로 선출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주군은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도입·실시하기로 하고, 본격 추진에 앞서 삼남면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등 전국 일부 지역에서 동장 및 읍·면장 추천제가 실시된 바 있지만 지역에서는 최초다.

읍·면장 주민추천제는 지역 주민 대표들이 직접 자신들의 읍면장을 선출하는 제도다. 주민들이 선출한 읍면장은 군수에게 추천해 임명된다.

군은 KTX 역세권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및 도심 정비, 읍·면장 등의 현안이 산재한 삼남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각종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주민추천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남면장은 선관위 역할을 맡게

되는 10여 명 규모의 '면장추천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는 공모를 통해 200여 명 규모의 주민투표인단을 선출한다.

지원자들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삼남면 내 마을 인구 비례로 추천을 통해 투표인단을 확정한다.

주민투표인단은 투표에 앞서 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 운영 비전과 공약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친 뒤 면장을 선출한다.

투표는 운영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투표 요원과 참관인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대상은 5급 사무관 및 사무관 진급 배수 안에 있는 6급 주무관이다.

군은 승진을 원하는 배수 하위권의 6급 주무관이 주 신청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6월 중순께 투표를 실시한 뒤 7월 정기인사 때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군은 공정성 확보를 최대 과제로 보고 잡음이 일지 않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읍·면장 주민추천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남면 시범 시행 후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현안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호 기자 bong@ksilbo.co.kr

용기마을 '취향저격 마을여행' 선정

문체부, 봄 여행주간 '30대 가족에게 추천 여행지'로 소개

울산시 울주군 외고산 용기마을이 '2019 봄 여행주간 취향저격 마을여행 20선'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봄 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으로 토카이성 데니저(Location Manager·현지촬영 감독)가 엄선한 20개 마을을 발표했다.

문체부가 추천하는 올해 '봄 여행주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로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봄 여행을 슬로건으로 한다.

문체부는 해마다 '봄 여행주간'에 '도시', '예술', '봄', '탈레비전 속 여행지' 등 여행 유형에 따른 순계진 여행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여행 유형은 '마을'이다. 드라마, 영화 등 상황별로 촬영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는 김태영 토카이성 데니저는 연평대방, 동백산 유형별로 매력적인 마을여행지 20곳을 소개했다. 북정마을(서울), 바석분향마을(부산), 바다리마을(인천), 원촌발산마을(광주), 소나무마을(경기) 등이 꼽혔다.

'취향저격 마을여행 20선'에 울산의 외고산 용기마을도 이름을 올렸다.

외고산용기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용기장산자이와 용기장연들의 마을이다. 1950년대 용기촌이 형성돼 1960~70년대에는 350여명의 장안들이 거주했다. 지금은 전국 용기 생산량의 50%를 책임지고 있다.

문체부는 외고산 용기마을을 '30대 가족에게 추천했다.

30대 가족이 함께할 용기문화관광원, 용기문화박물관 등 볼거리와 용기아카데미(제철장, 간접꽃(꽃)이, 자주정물(물) 등 놀거리가 풍부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봄 여행주간' 용기마을 일대에서는 '울산용기축제'가 열린다.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다. 대표 프로그램인 '용기장남 구경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공연·전시·참여·연계행사 등 60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만 관광정책 국장은 "여행 가고 싶은 봄, 여행 갈 수 있는 봄으로 만들기 위해 봄 여행주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집중적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울주군, 찾아가는 검진버스 타요 운영 협약

울산 인구보건복지협 수탁 업무
주 1회 방문검진 계약 주민 대상

울산 울주군은 1일 군수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찾아가는 검진버스 타요'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서 이선호 군수와 김형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본부장은 "찾아가는 검진버스 타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양 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검진버스 타요'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



울주군 이선호 군수와 (사)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본부 김형근 본부장은 1일 울주군청 군수실에서 '찾아가는 검진버스 타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로 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주 1회 이상 전문 검진(통증, 전립선비대증, 골다공증)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선호 군수는 협약식에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검진 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우수 기자 usnews@

울산신문

2019년 4월 4일 목요일 007면 사회

울주군 대운산 공영주차장 4년만에 준공

군·시비 47억 투입 212면 규모

대운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공사 착수 4년만에 준공됐다.

울산 울주군은 2일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276-1번지 일원에 대운산 공영주차장을 준공했다.

대운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군비 44억, 시비 3억, 총 47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면적 9,307㎡에 212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으며 2015년에 착수해 4년 만에 준공됐다.

대운산 일대는 봄·가을철 등 등산객과 하절기 행락객들이 봄비는 계절에는 불법 주차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불편 등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공영주차장 준공으로 대운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물론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울산수목원 이용객들의 주차



울주군이 대운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온양읍 운화리 1276-1번지 일원에 대운산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준공했다.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희 군수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대운산 외에도 범서 천상, 구영, 언양 서부, 동부, 온산 덕신, 청량덕하 등에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중이며, 앞으로도 주차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usjws@

울산신문

2019년 4월 8일 월요일 007면 사회

범서 지지고개 선형개량공사 본격 추진

중리~두동 은편 1.05km 구간
80억투입 이달 착공 2021년 완료

울주군 관내 대표적인 위험도로로 꼽혀온 범서 군도 31호선 지지고개에 대한 선형개량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울산 울주군은 범서읍과 두동면을 잇는 군도 31호선 구간 가운데 범서읍 중리 294-1번지 일원 '지지고개'에 대한 선형개량공사를 이달 중 착공한다고 밝혔다.

범서 군도 31호선(지지고개) 선형개량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3년 4월 제

2차(2014~2023)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2014년 9월 실시설계에 들어간 이후 최근 보상 등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1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선형개량 공사는 범서를 중리에서 두동면 은편리까지 구간 전체 연장 1.05km에 달하며, 도로폭은 가감속 차로를 포함해 11.0~19.0m로 넓어진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와 국비 각 50%씩 총 80억 원이다. 군은 공사 진행 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 교통계획을 수립

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울주군은 군도 31호선 구간 가운데 범서읍 중리마을 일원에도 연장 400m, 넓이 8.0~11.0m로, 전체 사업비 28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선형개량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2개소의 선형개량공사 모두 마무리 되면 당초 선형 불량에 따른 시거 불량으로 발생했던 교통사고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만큼 공사 기간 동안 군도 31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서행 운전 등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usjws@

울주군, 귀농·귀촌 지원 강화

상담·정보센터 설치, 농촌 활성화 목표... 정착 필요 재정 지원도 시행

울산시 울주군이 인구 유입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상담센터와 정보센터를 각각 설치하고, 정착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021년까지 '귀농·귀촌 복합문화 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 연간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센터 공모사업을 시행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귀농·귀촌에 필요한 지적·건축·농업·산림 등 행정 복합민

원을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귀농·귀촌인 민원 상담센터'도 설치한다.

군은 올 연말까지 민원지적과에 상담센터를 설치해 농지 매매에 필요한 지적 측량과 실거래 신고 방법은 물론 각종 행정 절차 흐름을 맞춤형으로 설명하고, 군의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시책도 안내한다.

뿐만 아니라 군은 귀농·귀촌인 재정 지원책도 마련한다. 퇴직 세대나 청년의

농업 창업 및 주택 자금을 지원해 초기 투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고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와 팜투어 등도 지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울주에 오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들이 부담감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인구 30만 울주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행·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선호 울주군수, 문화·임지 선정 환영 기자회견
"접근성 좋아 연계 용이...지역 건강지표 상승할 것
첨단 의료서비스 제공 맞춤형 공공병원 확대·발전 실행"

이선호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9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전문 공공병원 임시 용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군수는 "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시민의 염원이었던 산재전문 공공병원 입지가 임시로 결정된 일원으로 확정됐다"며 "국도 34호선이 관통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인근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KTX 역세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연계가 용이하고, UNIST를 활용한 높은 R&D 시설과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울산은 7대 특·광역시 중 삼급 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양과 뇌혈관질환 사망률 역시 특·광역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그나마 공공병원이 건립되면 지역의 건강 지표도 상승을 꾀며, 병정복·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군수는 병원 유자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병정복·재정적 지원에 대한 약속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물론 울산 시면 모두가 일단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공공병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군수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3천 4억 이상 규모로 300병상과 16개 진료과, 연구소 등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3,500여원으로 양질의 재원서비스 제공



이선호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 강정태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장이 9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문화·임지 공공주택지구 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최종 입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울산시면과 영문면 500명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출발하게 됐다. 울산시와

울주군 모두의 힘으로 울산에 맞는, 세 단계를 위한 맞춤형 공공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부지대당비용 300여만 원 정량

150여명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군청서 매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매일 기자 jeyjok85@nate.com

경상일보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013면 사람

'전국 최우수'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벤치마킹 줄이어

2018년 최우수 운영기관 선정
창원시 관계자들 견학차 방문

2018 전국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경남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식) 위원 등 관계자 17명은 10일 울주치매안심센터를 찾았다. 이들은 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운영 프로그램 참관, 이용자 인터뷰, 담당자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다.

김순식 위원장은 "창원시 치매 정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울주치매안심



경남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등은 10일 울주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센터를 찾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배운 선진 운영 사례를 창원 치매안

심센터 환경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준봉기자 bong@ksilbo.co.kr

경상일보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014면 문화

'용기장날 구경 오이소' 중심 54개 행사 운영

■용기축제 프로그램 확정

5월3일부터 나흘간 개최
전통용기제작 시연 이어
대형화로 이용 가마체험도
용기사랑 상품권 도입 논의

울주군은 16일 오전 11시 울주군청 비둘기뜰에서 '용산용기축제' 종합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올해 축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5월3일부터 나흘간 최고산 용기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올해 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용기장날 구경 오이소'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공연, 전시, 참여, 연계행사로 운영된다.

대표 프로그램 '용기장날 구경 오이소'는 전국에서도 품질 좋기로 소문난 용기마을 장이 열렸다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장수 용기해설과 최고산 용기장터, 곱개 경매, 마당극, 거리 퍼포



5월3일부터 나흘간 최고산 용기마을 일원에서 용산용기축제가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 용기축제 모습. 경상일보 자료사진

먼스 등이 진행된다. 마을입구 성황로 일대에서부터 용기마을길, 아카데미까지 300m 구간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용기사랑 상품권'이 도입됐다. 축제장 내 용기판매장에서 용기를 구입할 경우 3만원 이상이면 3000원, 5만원 이상이면 5000원, 10만

원 이상이면 1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이 상품권은 용기마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용기장인들의 전통용기제작 시연은 마을 안내센터에서 만날 수 있으며, 윤정남군은 용기마을관 뒤편에서 펼쳐진다. 용기를 만드는 요소인 흙과 불을

중심 테마로 구성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흙 속에서 땀과 공과 짜릿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불기마차는 아카데미관 앞 바닷에서 펼쳐진다. 전통용기가마와 대형화로를 이용한 가마체험으로 소원 장작을 지피고 대형 어외 화로에서 후이의 먹거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용기마을관에서는 축제기간에 맞춰 유인지역의 다양한 용기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세계용기특별전'이 진행된다.

용기마을 입구 영남요업은 감성 카페로 꾸며진다. 미니 콘서트 무대가 함께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아늑한 분위기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축제 기간 관람객 편의를 위해 남창역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또 KTX울산역에서 출발하는 500번 리무진 버스가 용기마을에 임시 정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기마을 뒤편 철도 이철에 따른 유류부지를 활용해 500년 이상 대형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석현주기자 hyunju20@ksilbo.co.kr

울주권역 산 테마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울주군, 용역 업체 모집 입찰 공고
2020~2026년 단·중장기 구분 개발
대중적 관광상품·브랜드 개발 등
바다 테마도 논의회 후경 심사 중

울주권역의 산을 테마로 한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다.

울산 울주군은 2004년 수립된 울주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울주 관광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없어 최근 관광여건의 변화 및 관광객의 새로운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 전체의 관광자원을 아우를 수 있는 체

제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최근, 군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울주만의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울주군 산 테마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업체 모집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용역에는 울주군 전역(757.33km²)을 사업범위로 하며 2020년부터 2026년을 목표 연도로 단기(2020~2022년), 중장기(2022~2026년)로 단계를 구분한 개발 계획이 담겨진다.

용역에서는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산 테마 관광 시장 분석 △산 테마 관광

자원 기본 및 개발 계획 △산 테마 관광사업 집행 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산 테마 관광 상품으로 클라이밍 등 전문적인 산악관광 콘텐츠 대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 요소가 강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영남알프스 산악올림픽, 자연설치미술 중심의 영남알프스 비엔날레 등의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마련된다.

또 울주 관광 UI 디자인, 캐릭터 등 관광 브랜드 등의 개발도 용역 과제다.

'산 테마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3억원이며, 용역기간은 2020년 1월까지 10개월간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선호 군수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호랑이 생태원 조성'과 관련하여 "영남알프스 산불산 일대에 '호랑이 생태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이번 산 테마 관광개발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상상의 숲 테마파크 조성사업(4만5,000㎡)'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관련 용역은 현재 부지 선정작업 등의 이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산 테마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바다를 테마로 한 바다 테마 관광개발 종합계획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상태로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울주군의 제18회 임시회 추경심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전우수기자 usnews@ulsanpress.net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지역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대중성 높인 주제·토크·전시등 소통 힘쓴다

슬로건 '함께 가는 길' 중심
산악문화에만 한정하지 않기로
임시 상영관 소음 문제도 해결

4화차를 맞는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슬로건 '함께 가는 길' 아래 그 어느 해보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연출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올해 축제의 이같은 방향성과 대략 일정에 대해 18일 공개했다.

올해 영화제는 지역 문화예술·산악 단체와의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영화제에 지역민을 주체적으로 참여시킬 새로운 전략을 구상 중이며 세부계획은 향후 운영위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또 축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축제 기간 상영되는 영화의 주제도 '산악문화'에만 한정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 등 주제 범위의 확장으로 대중성을 높인다. 아울러 토크나 전시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임시 상영



2019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그 어느 해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에 방점을 둔다. 사진은 지난해 개막식 장면.

관 소음 발생 문제도 해결된다. 올해는 임시 상영관을 최소화 하는 대신 울주 산비위도서관 등 기존 상영 공간을 적극 활용, 축제의 외연을 확대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편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9월8일부터 10일까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레저센터를 메인 행사장으로 해 울주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다. 25개국 150여 편의 영화가 상

영되고, 영화제 참석 내외부 연사를 소개하는 그린 가넷, 세계산악문화상 시상, 축하공연, 국제경쟁 부문 시상, 개폐막작 등으로 진행된다.

영화제에서 선보이는 핵심 영화 프로그램은 알피니즘(전문 산악)·클라이밍(전문 등반)·모험과 탐험(탐험과 여행, 산악스포츠)·자연과 사람(자연과 삶, 문화) 등 4개 부문이다.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국제경쟁 시상식은 영화제 하이라이트다. 또 울프 포커스(기획 특별전)·울프 라이브(울프 클래식과 부제)·울프 프로젝트(울프 서밋과 플랫폼) 색선에서도 영화를 상영한다.

출품된 아시아 영화 중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는 '넷팩상' 시상식, 2019 세계산악문화상 수상자 쿼트르 댄베르거(Kurt Diemberger·80) 기자회견 및 강연도 열린다.

서한주기자

울산신문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007면 사회

울주군서 올해 첫 모내기

온산읍 강양들 '새일미' 심어

올해 울산 울주군 지역의 첫 모내기가 18일 온산읍 강양리 832(3,130㎡) 안국주(64)씨의 논에서 진행됐다.

이번 첫 모내기 행사에는 이선호 울주군수와 농업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벼농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농사의 기원과 올해 벼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모내기 품종은 '새일미'로 밭맛이 좋고, 지역 기후조건에 적합해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다른 품종보다 모내기 시기가 30일 정도 빨라 9월 추석 이전 수확이 가능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호 군수는 "울주군은 못자리 상토와 부작토 공급, 고령농가 배 육묘지, 수도작 농약지 등 쌀 산업기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



18일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832번지 일원 안국주씨의 논 3,130㎡에서 실시된 올해 울산지역 첫 모내기에서 이선호 울주군수, 강양대 울주군의회 의장, 군의원, 농민들이 청년 농사를 기원하며 전통행사의 손 모내기를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

울산신문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001면 종합

범서 구영들 공원 조성사업 7년만에 '본궤도'

구영교-산악위크 22만여㎡ 규모

산책로·피크닉·물놀이장 등 추진

울산시 백마대솔 연계 시너지 기대

울주군 범서읍 구영들 공원이 공원 조성 7년만에 공원 조성 수급 용역에 붙어가는 등 본격적인 공원 개발에 들어간다.

울주군은 지난 18일자로 구영들공원(범서읍 구영리 708-3 일원) 22만 4,570㎡를 대상으로 한 '구영들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번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2012년 5월, 2013년 4월 울산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 제1차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지 7년만에다.

■개발제한구역 포함 연구용역 발주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도 구영들 자투리땅의 일원만 개발을 사들인 곳이다.

당시 지주들은 "1998년 경지계획 이후 단 한 번도 용수 리에게 있어 우리 농업의 번식원에 대해서 잘 정비된 목표"라며 공원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현재 울주군이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구영들 공원은 면적 22만 4,570㎡, 255필지 가운데 사유지가 20만 1,178.6㎡, 181

필지로 전체의 88.6%에 달하며, 사·군유지가 1만 1,173.9㎡ 38필지로 전체의 5%를, 국유지가 1만 2,327.6㎡, 48필지로 전체의 5.4%에 달한다.

울주군은 이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던 구영들 공원을 공원 조성 계획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도 함께 용역에 포함시켰다.

울주군 관계자는 "도시지역내 녹지축식 공간 및 농가시설 부속으로 공원 조성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을 조성에 자원을 사들인 행적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구영들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붙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또 "범서 구영리 지역은 거주인구만 3만 2,000여 명이 달하는 울산지역에서도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다"면서 "이번 용역은 오

랫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구영들 공원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구영리수지 수변공원 조성도 추진
현재 울주군은 구영들 공원 지역에 산책로, 물놀이장, 피크닉장, 휴게쉼터 등 소자전환형 휴식공원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공원으로 조성될 지역에 대부분 범서 구영교에서 산악위크 인근까지 태백산맥으로 일출해 있고, 이 가운데 구영교 쪽은 개발제한구역 1,380㎡에 해당하며 산악위크 인근 일출해 3만 5,880㎡ 면적을 대당으로 18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물놀이장 등과 공원 주차장 등의 추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구영들 공원에 가서

와 볼 경우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마대솔 조성 계획과 연계해 태백산맥과 휴식공간을 갖는 수변공원으로의 역할은 물론 생태적으로 울산 태백산맥 대공원과 연결되는 울주군의 태백산 대공원 조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용역에는 1억 원이내 용역 기간은 20개월간이다.

한편 울주군은 이번 용역과는 별개로 구영리 104 일원 14만 5,880㎡에 대해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 지역은 인근에 형성된 육지로 인해 주민들이 진입이 어렵던 곳으로 울주군은 이곳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범서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 1억 4,000여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다. 전우수기자 usj@

울주군 '맘편한 임신·출산 행복울주' 큰 호응

울주군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맘(mom)편한 임신·출산 행복울주'정책이 임신부와 난임 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맘(mom)편한 임신·출산 행복울주'는 울주군에서만 시행하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군수 공약 및 시책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과 임신부와 난임 부부의 진료 교통비를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울주군만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월까지 출생아 355명 중 220명(61.9%)이 신청하고, 그 중 기준중위소득 초과로 인한 울주군 첫째아 예외 지원으로 53명에게도 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교통비 지원은 임신부 220명, 난

임 부부 42명이 1,111회 타 지역으로 이동해, 5,555만원의 진료 교통비를 지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맘편한 임신·출산 행복울주'를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익숙한 가정환경에서의 산후 조리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감소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며 "난임 부부의 시술 시 진료 교통비 지원으로 심리적·경제적 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난임 부부(여성)로,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및 범서읍 보건지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204-2744)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아 기자

울주군, 농·특산물 베트남 수출 확대 나선다

올해도 호치민서 종합 판촉전 개최
배즙·배젼·전통주 등 품목 다양화

울주군이 농·특산물의 베트남 수출 확대에 나선다.

울주군은 베트남에 대한 울주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대해 올 한해 배, 단감, 알로에 등 울주 지역 주요 농산물 수출 물량이 300t에 13억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베트남 수출에 93t 2억

2,500만원보다 207t이 증가한 것이다.

군은 특히 그동안의 전통적 농산물 품목 외에 배즙, 배젼, 배빵, 전통주 등도 신규로 수출할 계획으로있는 등 수출품목도 더욱 다양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베트남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처음으로 '울주농식품 종합판촉전'을 가졌다.

이어 올해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 호치민에서 '울주농식품 종합판촉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관련해 22일 오후 군수실에서 베트남 현지 무역회사인 탕안(THANG ANH) 대표 트라반 탕(TRAN VAN THANG) 등 관계자를 초청해 울주 농식품의 베트남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산물유통공사(aT) 부산울산지사 장지희 과장과 한국수출입체인 K팝 영농조합법인 임만석 대표, 이윤진 서생농협장이 함께 참석해 올해 수출 계획물량 및 품목과 베트남 울주 농식품 종합판촉전 행사에 대해 협의했다.

전우수기자 usjws@

울산신문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003면 종합

울주군, 영남알프스 대표 등산로 정비 추진

문수·계약·고현·남암산 등 4곳
1억 9,700여만원 공사 입찰 공고
하늘역세길 2억700만원 들여 개선

영남알프스 계약산과 문수산 등 울산의 대표적인 산행코스에 대한 정비사업이

실시된다.

울산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가운데 하나인 계약산(1,108m)과 고현산(1,033m)을 비롯해 문수산(600m), 남암산(543m) 등 울산의 대표적인 등산로에 대한 정비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은 최근 문수산 등 4개소의 등산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2019년 등산로

정비사업'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또 계약산 등산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영남알프스 하늘역세길 정비사업' 공사 입찰도 함께 공고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1억9,700여만 원을 투입해 울산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인기 등산코스인 문수산의 일명 딸각고개를 비롯해 남암산과 영취산, 고현산

등의 정목과 계단을 새롭게 교체한다.

또 영남알프스 하늘역세길 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 2억700여만원이 투입돼 노후 목재데크를 교체하고 침목포장, 우회 등산로 설치, 야자매트 설치, 안내판 설치, 기존 노후 시설 철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등산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을 위해 울산의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위험시설물 등을 보수 또는 교체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경상일보

2019년 5월 1일 수요일 006면 사회

郡, 132억 들여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등 착수
일반영화 상영 영화관등 갖춰
일각 "복구와 중복투자" 지적
郡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멀어"

울주군이 늘어나는 지역 미디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영상 제작과 교육이 가능한 센터 외에 3관 규모의 영화관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복구에 방통위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유사 시설이 있어 일각에서는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이달 중으로 울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늘어나는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영상 교육과 제작, 상영 등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범서읍 구영리 울주군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조성된다. 부지 면적 1400㎡ 연면적 30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32억원이다.

센터에는 미디어 교육실과 영상·녹음 스튜디오, 편집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일반 영화 상영이 가능한 3관 규모의 정규 영화관도 설치돼 군 주민들의 편의 개선도 기대된다. 센터는 장애인·노인복지관도 입주하는 복합 건물로 조성된다.

센터에서는 영상미디어 관련 교육과 영화제작 및 감상 등의 동아리 활동, 미디어 체험, 영상장비 대여, 영화 상영 등이 이뤄진다.

군은 1차 추경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달 중 용역에 착수해 8월 완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된 센터 예정 부지의 용도를 문화시설 부지로 바꾸는 도시계획결정 변경

을 추진한 뒤 내년 실시계획 등을 거쳐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복구에 방통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거액의 군비를 투입해 기능이 유사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할 경우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까지 거리가 멀어 군민들의 접근성이 낮아 자체 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와 정보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면 두 센터가 지역 미디어 인프라의 양대 축으로 성장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영기자 bong@ksilbo.co.kr

울산신문

2019년 5월 3일 금요일 003면 종합

울주군 프랜드 가이드 본격 활동

심사 통해 선발 19명 오늘 발대식
지역 특색 홍보·채류형 관광 유도
유니스트·공단·전통주 등 10여개
직접 기획 투어 프로그램 6월 실시

울주군의 관광 홍보 패턴이 바뀐다.

울주군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매력을 전달하고 채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울주 프랜드 가이드' 서비스 활동에 들어간다.

'울주 프랜드 가이드'는 일반 여행 상품이나 현지 가이드 중심의 전형적인 관광 패턴을 지양하고 울주만이 갖고 있는 기획 관광 상품을 개발해 공급하는 주요

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울주군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 상품은, 울산의 대표적 연구기능 대학인 유니스트를 방문해서 현지 가이드와 유니스트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실험체험과 교내 탐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유니스트 대학 투어', 석유화학 공장들이 밀집한 온산공단의 역사와 제조 현황 등을 현장에서 보고 익히는 '온산공단 야경 투어', 울주지역의 전통주를 맛보고 즐기며 지역을 이해하는 '울주(酒) 투어' 등 이색적이고 독창적인 10여 개의 관광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심사를 통해 선발된 19명의 '울주 프랜드 가이드'가 직접 기획한 관광상품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존 관광해설사 등은 현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지역을 홍보하는 형식적인 반면, '프랜드 가이드'는 현지 실정에 밝은 가이드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상품을 관광객이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하고 추진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관광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울주 프랜드 가이드'는 3일 오후 군청 문수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울주 프랜드 가이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최종 점검과 관광객 사전 접수를 위한 울주관광 홈페이지 구축 등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6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usjws@

옛 장터·옹기의 매력에 흠뻑 빠진 연휴

‘울산옹기축제’ 15만여명 찾아 성황
차별화된 체험·참여·공연 등 호평
어린이날 연계 가족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 풍성한 볼거리·추억 선사

문화체육관광부 육성축제로 자리잡은 2019 울산옹기축제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외고산 옹기마을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15만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6일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 울산옹기축제는 SNS홍보 확대와 파향날 낚시, 어린이날 연계행사 등으로 15만명 이상 다녀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축제에는 14만7천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울주군은 방문객 증가의 원인으로 옹기마을 공원지구에 있던 대형 배민두대를 없애고 옹기박물관과 아카데미관, 파울 굴막길 곳곳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관람객들의 지루한 동선을 없앤 점에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곳곳의 감성 포토존은 SNS홍보를 극대화 해 방문객의 수가 증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판단했다.

올해 축제는 대표 프로그램 ‘옹기잔란 구경 오이스’로 옹기박물관을 중심으로 200여m 구간에 외고산 옹기장터, 옹기경매, 추억의 옹기마을길과 포토존 등을 구성해 옹기축제만의 차별화된 볼거리를 한껏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 울산옹기축제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일대에서 열렸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외고산 옹기정인들의 옹기 제작 사연을 관람하고 있다.

정태준 기자

특히 올해 장터시연은 2m가 넘는 초대형 옹기를 제작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관람객들은 외고산 마을 평행문화대 옹기장인들의 전통옹기 제작사연을 관람하면서 탄성을 지어냈다.

뿐만 아니라 흙·물·불·바람을 테마로 자연별 콘텐츠를 명확하게 구분 배치하고, 축제장 곳곳에 볼거리 먹거리를 풍성하게 구성했다.

또한 옹기마을을 순회하는 순환열차를 운영해 축제장의 분위기를 살리는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

램도 인기를 끌었다.

휴먼이더와 워터슬라이드를 결합한 휴먼인존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흙과 함께 놀고 뛰어놀았다.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로 펼쳐진 들종새옹기 ‘옹기대탈’도 관람객들이 한낱 무대위를 날리기에 흥분했다.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품격 이벤트 ‘황금 옹기를 찾아라-!!’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역시 관람객들에게 축제의 즐거움을 전했다.

옹기박물관에서 진행된 세계옹기특별전과 대형명 손글씨 서명 옹기 특별전, 제6회 대한민국 옹기공모전 입상작품 등 중

성한 볼거리도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올해 축제는 의미적인 개막식이나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고 울주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대풍의 한마당이 연출됐다”며 “올해 대비했던 점은 보완해서 문화관광축제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 인권집계는 전문가단 참여의뢰를 통해 문화관광축제 평가지침에 의거해 진행됐다. 공식 집계발표는 2019 울산옹기축제 평가보고회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성병석 기자

울산매일

울주군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 본격 추진

울주군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창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울주군은 지난 3일 남부청소년 수련관 건립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하1층에는 수영장, 샤워·탈의실, 댄스연습실, 청소년 열린마당, 바리스타체험실, 당구장, 수처리·기계실, 선관마당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에는 체육실(체력단련, 발레,

2019년 5월 7일 화요일 002면 중합

요가), 사무실, 양호실 등이, 2층에는 강의실 영상미디어실, 상담실, 동아리실, 미술·공예실, 컴퓨터실, 분임토의실(오픈형), 다목적실이, 3층에는 다목적공연장, 대기홀, 다목적실, 요리체험실, 방송·음악·악기연습실, 꿈에라운지(휴게), 연결통로, 과학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상아 기자 lawyer405@usm.co.kr

울산신문

울주군, 방산능방재 안전 마일리지 시행

교육·훈련 활성화·역량강화 목표
참여유도 실적 따라 인센티브 지급

울주군이 일반인의 방산능방재 훈련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방산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울주군은 방산능방재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와 주민대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울주군 방산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2일자로 공포했

다.

방산능방재 마일리지 제도란 방산능방재와 관련한 교육·훈련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울주군 자체 우수시책발표회에서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군은 그동안 조례 제정과 관련한 입법 예고와 군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일자로 공포했다.

2019년 5월 8일 수요일 007면 사회

관련 조례에는 군수는 방산능방재 관련 교육훈련 참여자에게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안전마일리지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과 군의원, 급전이나 불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교육훈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안전마일리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은 방산능방재 마일리지 조례 공포에 따라 후속 조치로 마일리지에 부응하는 인센티브 지급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칙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6월부터 방산능방재 안전마일리지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usns@

울산매일

울주군에 생산·가공·관광·교육 융합 6차산업단지 조성

2019년 5월 9일 목요일 008면 사회

평, 165만㎡~330만㎡ 대규모...6월 설계용역 발입
구례 자연드림파크·임실 치즈메타파크 등 성장동력 견학
산악·해양관광단지 연계 복합적 시너지 효과 기대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 교육 등이 융합된 대규모 6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산업단지 조성은 1차 생산물에서 태마를 두지 않고 다양한 생산자들이

모여 단지를 구성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생산물에 집중하게 되면 케이스 별로 개인사업자의 수익경도에 영향을 주는 반면 지역총생산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군의 분석이다.

이에 다양한 대학의 생산자들이 모여 2차, 3차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형태

로 추진한다.

또 단순히 먹고 보는 것에 국한된 관광 단지가 아닌 새로운 융복합 산업과정이 필요하다고 군은 진단했다.

대단위 단지 내 첨단생산 기반, 가공, 관광, 교육 등을 아우르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관광농업과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최고의 6차산업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군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적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형태의 단지로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오지 않는 관광지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군의 분석이다.

에 밖에도 기존에 조성하고 있는 산악관광단지, 해양관광단지 등과의 연계로 통해 복합적인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군은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단지에 입주하게 할 1차 생산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6월 설계용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 내부적으로는 단지조성 부지도 청정지역으로 확정한 상태다.

예를 들어 이천호 군수를 비롯한 담당 직원들이 오는 9월 국내 6차산업단지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는 구례 자연드림파크와 영실 치즈메타파크를, 10월 남한 지

리산의브레드를 차례로 견학한다.

군은 이번 견학을 통해 국내 6차산업 단지의 성공 사례와 장단점, 문제점 등을 직접 현장에서 파악하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지 등 지역에 가장 적합한 6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구상할 계획이다.

이천호 군수는 "이번 견학을 통해 6차산업단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조성 방향과 설계 등을 구상할 계획"이라며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 교육 등을 융복합해 최소 165만㎡~최대 330만㎡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kimsd@usns.co.kr

울산매일

울주군 '상반기 채용박람회·약빨취 취업컨설팅' 호응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009면 사회

0.3가구는 미국 고용률(4%)

박람회, 185명 채용 800여명 방문
콘서트, 취업 노하우 전수 '언기'

평년 장여부터 베이비부머 은퇴자 및 자영업자 다양한 취업의 장이 울주군에 열렸다.

울주군은 9일 금요일 1층 콘서트홀과 영리 스포스에서 '2019년 상반기 울주군 채용박람회'와 '약빨취 취업컨설팅'을 각각 막과 함께 열었다. 취업컨설팅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을 하는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울주군 소재 기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상사, 애견가게 등이 참여해 최·정년층,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취업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58개사가 참여해 185명 규모의 채용에 나섰다. 800여명이 방문, 317명여 현장면담에 응했으며 107명이 이력서를 제출했다.



울주군은 9일 금요일 1층 콘서트홀과 영리 스포스에서 2019년 상반기 울주군 채용박람회와 '약빨취 취업컨설팅콘서트'를 개최했다.

또 박람회와 합성하면 울주군에 0.3가구는 미국 고용률(4%)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에 0.3가구는 미국 고용률(4%)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약빨취 취업컨설팅' 주제에 대해 취업 컨설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 도로 콘서트'를 함께 개최해 '이력서와 자기소개

서 쓰기' 등 취업 노하우 관련 강좌를 전수해줌으로써 구직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는 국내 최대 협력거버넌스 운영 컨설팅 그랜드로 대거급 그룹 90% 이상 협력, 참가료 800여명 참여 등을 열거했고 울주군은 알뜰한

실업 컨설팅과 함께 울주군고용센터 등 10개 기관이 공동 참여해 지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일자리정책지원팀(204-1359)로 문의 가능하다.

김성대 기자 kimsd@usns.co.kr

택지+산단+타운하우스 ‘울주형 도시개발사업’ 추진

울주군, 인구 30만 목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설문조사
“인구 유입으로 2025년 인구 30만 조기 달성·경제 활성화 기대”

울주군이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문화지 타운하우스 조성을 골자로 하는 울주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울주군은 인구 30만 달성을 목표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민간·기업체·공공기관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군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개발 방향과 수요, 소요지적 등을 조사해 대략적 선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연구자주제 주

면까지 모래매 1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한달간 서면 설문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울주군청 민원실과 12개 읍·면에서 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읍면별에서 내 주요 대기업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군은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별도로 발송할 계획으로, 해당 기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허가 타운하우스 조성과 유치에도 적극적으론 나설 예정이다.

군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타운하우스 등 다

양면 형태의 울주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등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타운하우스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은퇴세대부터 자녀가 있는 젊은 수요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요자들이 타운하우스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군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22만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 주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주군 연구는 지난 4월말 외국 연

7,215명을 포함해 22만 3,191명(통산 11만 4,655명, 여 10만 7,336명)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82개 군 단위 거주자 10만명 이하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7년 2월 경북 달성군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울주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타운하우스 조성 등으로 2025년 목표 인구 30만을 조기 달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ykim@ksilbo.co.kr

울주군, 대송항에 전복 종자 36만마리 방류

해적생물 제거·포획금지 감시도
내달까지 강양어촌계 추가 방류

울주군은 21일 수산 종자 매입방류사업의 일환으로 간절곶 대송항 일대에서 전복 종자를 방류했다.

울주군은 사업비 2억 9,000만 원(국비 2억 3,200만 원, 군비 5,800만 원)을 들여 전복 36만 248마리를 사생면 7개 어촌계 마을 어장에 방류했다.

이날 방류한 종자는 각각 4cm 이상 성

장한 어린 전복으로, 국립수산물관리원의 방류 수산 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종자로 풍부한 연안 자원을 조성하고 어촌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은 방류사업에 앞서 전복 종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해녀 등 나잡어업인을 동원해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을 제거했으며, 방류 후에도 방류 구역에서 종자 포획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등 자원조성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울주군은 다음달까지 자율관리어



울주군은 21일 수산 종자 매입방류사업의 일환으로 간절곶 대송항 일대에서 전복 종자를 방류했다.

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온산읍 강양어촌계 마을어장에 전복 5만 9,000마리와 해삼 1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전우기자 usjms@



울주군은 지난 25일 이선호 군수와 각 기관·단체장, 지역 청소년,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청소년수련관’ 개관식을 열었다.

郡 중부청소년수련관, 내달부터 운영 시작

울산 울주 중부청소년수련관이 다음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중부청소년수련관은 총 사업비 약 103억원을 들여 범서읍 구영로 101-20 일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 면적 2291㎡ 규모로 지난 4월 착공 16개월 만에 건립됐다. 주요 시설은 청소년 열린 마당과 교육실, 동아리실, 심리상담실, 댄스·노래·밴드연습실, 다목적 공연장(174석) 등이다.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및 체

험활동이 가능하다.

시설 운영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주군국민체육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에 자리 잡은 중부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어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 기능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불법쓰레기 해결 ‘울주 국민디자인단’ 발족

꽃동산으로 변한 쓰레기장
행안부 지원과제에 선정돼
디자인노동 지원 14명으로
내달 20일부터 주1회 활동



울산 울주군은 28일 오후 2시부터 울주군청에서 ‘울주 국민디자인단’ 발족식을 열고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울산 울주군은 국민 및 전문가와 함께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명 규모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내달 20일부터 주1회 활동한다.

울주군 국민 디자인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 대상 국민 디자인단 지역 과제에 ‘불법쓰레기장’으로 선정된 울주군을 비롯해 ‘꽃동산’으로 변신한 우리 동네 쓰레기 불법 투기장’이 최종 선정돼 운영된다.

국민 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전 국민과 공직자인 공무원이 함께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해 공공 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국민 참여형 정책 도출을 목표로 한다. 울주군 국민 디자인단은 관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뽑아지는 쓰레기 불법 투

기해 대한 해법을 찾게 된다.

울주군 국민 디자인단은 주민과 서비스 디자인에, 관련 분야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은 위임 위촉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액션 분담, 운영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울주군 국민 디자인단은 오는 6월20일 1차 회의와 사업으로 1차 회의와 총 10회 활동하게 된다.

특히 시범 운영 예정지역 시정

면을 비롯해 주민 삶속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공책을 만들고 실행할 예정이다.

이선호 군수는 “울주군 국민 디자인단은 주민과 함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은 물론, 민·관 협업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songh@ksilbo.co.kr

울주군 삼남면장, 군민이 직접 뽑는다

郡, 내달 1일부터 투표인단 모집
면장후보자는 7일까지 공개모집

울주군이 '읍·면장 주민추천제'의 첫 도입 지역인 삼남면의 면장 선출을 위한 주민투표인단을 공개 모집한다.

울주군은 올해 7월 정기 인사 때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한 '읍면장 주민추천제' 추

진계획에 따라 삼남면장장 추천을 위한 주민투표인단 모집을 6월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이 추진하는 '읍·면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이 추천한 공직자를 임명권자인 군수가 읍·면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타 지자체는 2014년부터 시작해 왔으며, 울산지역 지자체 가운데는 울주군이 처음이다.

군은 삼남면장으로 임명되는 공직자에게는 송진·근병 우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남면장 주민추천제 운영위원회는 2주간 집수를 거쳐 오는 6월 18일까지 250명의 주민투표인단을 구성하고, 후보자 정책발표·질의응답·투표를 거쳐 6월 말까지 대장자를 선발한 뒤 군 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주민투표인단은 삼남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2000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 주민 중 2019년 6월 1일 이전까지 주민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삼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주민투표인단 모집' 배너를 클릭한 뒤 '주민투표인단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울주군은 이와는 별도로 삼남면 면장 후보자를 6월1일부터 7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5급사무관이나 사무관 직급 배수안에 있는 6급 직위로 현재 50여명이 후보자군에 포함되고 있다.

전우수기자 usnews@

울주군 CCTV 관제센터 음주운전 검거 기여

상황실 모니터링 중 의심차량 신고
경찰 출동 면허취소 수준 확인 입건
음들어 뺑소니사고 등 395건 해결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지역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쯤 울주군 삼동면 출강

리 92-2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흰색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상황실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차에 타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운전자 이 모 씨(67세·남)의 혈중알코올 농도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다.

울주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올해 5월 현재까지 공원 등에서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폭력 등 비위행위 적발, 쓰레기 불

법 투기, 차량 뺑소니사고와 해결 등 395건의 실적을 올렸다.

현재 울주군은 방범 CCTV 관제요원 16명이 교대근무로 CCTV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24시간 범인 검거 및 예방 등에 주력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6월까지 2개소 47대 CCTV가 더 설치될 예정으로 실시간 범인 검거 등 시민의 안전한 사회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usnews@

울주군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우수 복지부 장관 표창

기본구성·사례관리·서비스 등
전국 94곳 시·군·구 중 전체 3위

울주군 드림스타트가 201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월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19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 보고 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94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울주군 드림스타트는 기본구성·사례관리·지역자원개발서비스운영 질적 수준 등 모든 분야에서 전체 3위를 받았다.

전우수기자 usnews@



울주군 드림스타트가 201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월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19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 보고 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울산신문

2019년 6월 7일 금요일 007면 사회

울주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속도'

언양 구수리 일원 토지매입 완료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입찰 공고
실시실제 용역·폐기철거 용역도

울주군이 추진중인 토론포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켄접움을 보이고 있다. 울주군은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산 233번지에 2만3,306㎡ 부지에 11억 원의 사

업비를 투입해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토지매입 등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4일자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예정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발굴조사는 오는 오는 7월말까지 한달여간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발굴조사는 별도로 이달부터 2020년 3월을 목표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실시실제 용역과 기존의 폐기 철거 용역에 들어간다.

울주군이 추진중인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는 가족·소농·귀농농민과 생산공동체를 조차해 로컬푸드 생산·유통(가공)을 활성화하고 직매장, 학교급식 등 관계 시장의 증충 및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는 3층 규모로 학교급식센터와 공동가공실, 교육·안전성 검사실 등을 갖추게 되며, 오는 2020년 9월에 공사에 착공, 2022년 3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울산신문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007면 사회

울주군, 맛과 멋이 있는 울주 맛집 44곳 선정

서류심사 거쳐 전문가 현장 검증
3년간 공식 블로그 홍보 등 지원

울주군은 지역 외식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맛과 멋이 있는 울주 맛집' 4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울주군은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 울주 조성과 지역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업주 신청과 추천을 통한 1차 서류심사에 오른 96개소를 대상으로 2차 현지심사를 갖고 최종 44개 업체를 '맛과 멋이 있는 울주 맛집'으로 선정했다.

2차 현지심사는 지역대학 관련학과 교수와 유명 블로거 등 외식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했으며, 맛과 위생, 친절도, 가성비 등 총점이 85점 이상인 업소가 '울주 맛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소는 지난 2016년 지정된 맛집 10곳이 재지정된 것을 비롯해 연양불고기, 물회, 국밥, 오리불고기, 칼국수 등을 메뉴로 하는 34곳이 신규 지정됐다.

선정된 맛집은 3년간 울주 맛집으로 운영되며, 울주군은 이들 업체에 대해 분기

별로 위생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만약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운영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주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증과 표지판, 위생용품 등이 지원되며 지도와 울주 관광 홈페이지, 울주군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기회를 얻는 한편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2019 울주 음식문화축제' 품평회에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울주 맛집 선정 업소 명단은 10일부터 울주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전우수기자 usjws@



울주군은 13일 군청 7층 이화홀에서 민선 7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민선 7기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 간 공약 추진성과와 문제점 분석 등의 시간을 가졌다.

울주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율 46% '원활'

92개 사업 중 73건 정상 추진 중
군민권익위·혁신위 등 14건 완료

울주군은 민선7기 이선호 군수의 공약 추진율이 45.9%에 달하는 등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울주군은 13일 군청 7층 이화홀에서 민선 7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민선 7기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 간 공약 추진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주군 민선 7기 군수공약은 5개 분야, 85개 공약, 92개 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1조 3,12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 중 군비는 8,692억 원, 국비 2,395억 원, 시비 1,082억 원, 민자 등 9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은 자체 분석 결과 공약사항 92개 사업 중 지난 1년간 완료된 사업은 모두 14건이며, 73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부진 사업은 3건이라고 밝혔다.

전체 공약사업 추진율은 2019년 5월 말

현재 45.9%로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약 가운데 '소통·혁신 행정' 분야는 8개 사업 중 울주군민권익위원회, 혁신위원회 설치 등 7개 사업을 완료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분야는 20개 사업 중 인구 30만 목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 18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인 가운데 6차 산업 전락지구 지정 및 개발, 스마트팜 혁신 벨리 조성 등 2개 사업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어 사업 진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분야는 22개 사업 중 하고개 군도 조기 확공 사업이 지난 5월 착공했고,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진하-남창간 긴급재난 안전도로 건설 등 21개 사업이 정상추진 중이다.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분야는 24개 사업 중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을 완료했다. 중부노인복지관 건립, 남부 청소년수련관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16개 사업이 정상추진 중이며, 미래형 직업

체험관 건립사업은 청소년수련관 4차 산업혁명 체험실 운영으로, 대학등록금 및 사회초년생 사회진출 자금 500만원 만들기 사업은 대학등록금 및 사회초년생 사회진출자금 지원(청소년성장지원금)으로 변경해 추진 중에 있다.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 도시' 분야는 18개 사업 중 1박 2일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 울주군 캠핑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관광사업소는 울주문화재단 설립 이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율이 부진하다.

이선호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단기간의 실적보다는 공약을 추진하면서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추진 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거나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주군은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발전적인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모색해 공약사항 실천에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우시기자 usjws@

경상일보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006면 사회

울주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본격화

악취 저감·빅데이터 기반

추천 21곳 현장점검 완료

1300억 들여 2021년 착공

해당 지역주민 설득 과제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환경 친화 축산단지 사업이 본격화된다. 울주군이 후보지 21곳의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 입지 선정을 남겨둔 가운데, 축산단지 입주를 기피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울산 울주군은 지난 14일 군청 이화

홀에서 이선호 군수와 추진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축산단지 추진 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위촉식에 이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추진 방향 및 분장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의견 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군은 축산 환경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등 축사 입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이 중심이 돼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폐·액비 공동자원화 설비와 악취 저감 자동 환기시스템 등을 구비한 냄새 없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

터 기반의 첨단 축산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300억원으로 한 우 2만마리 사육이 가능한 단지 2-3곳을 조성한다.

군은 지난해 10월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3월 스마트 축산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두 달 동안 축산단지 추천 입지 21곳을 검토하고 현장 점검도 마쳤다.

군은 조만간 기술용역에 들어가는 한편 입지 공분화 및 지역 주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선진 축산단지 견학 등을 통해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진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조성계획 수립과 축산단지 모델 자문, 운영 조례 제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군은 내년 1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시작하는 동시에 부지 매입 협의에도 나선다. 2019년 10월 실시할 예정에 들어가 빠르면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정성욱 울주군 경제산업국장은 "깨끗하고 질병이 없는 미래 첨단 축산업 구현을 위해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행복한 환경친화 스마트 축산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경기자 bong@ksilbo.co.kr

U울산매일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008면 사회

사고·재난 피해 군민에 최대 1,500만원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내달 1일부터 적용

김사육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근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울주군은 지난 3월 김사육 의원(경제건설 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최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지방공제회의 안전공제에 가입을 완료했다.

해당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착을 마련한 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벤소나·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역시사망 △12세 이하의 스포츠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 사례에선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유괴·납치·인질 사고에 대해서는 1일당(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보험금이 90일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미야 찾기 지원금 100만원(신고 시점 1개월 후)도 보장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군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대한 보장이며, 만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장에서 제외되고, 상해는 후유장해를 3% 이상이어야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김상여 기자 lawyer405@hsm.co.kr

울산신문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002면 종합

울산 첫 주민추천 삼남면장 누가 주인공 될까

5급 승진 대상자 3명 후보로 접수
사전 선발 투표인단 220명 선거
1.2위 투표자 중 군수가 최종 결정
오늘 읍주군 5급이상 승진 발표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읍·면장을 뽑는 '읍·면장 주민추천제'가 읍·면장 삼남면에서 추진중인 가운데 읍·면장 선출 절차인 '면장 추천 주민회의'가 오후 3시 읍주군 삼남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읍·면장 주민추천제는 주민들이 투표인단을 꾸려 직접 읍장이나 면장을 선출하고 단체장인 군수에게 추천해 해당 읍·면장을 선출하는 제도로 울산에서는 읍·면장이 처음 삼남면을 그 첫 적용대상으로 선정해 시행하게 됐다.

주민투표인단과 일반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 삼남면 추천 주민회의는 5급 승진 대상자 중 자발적 접수자 3명에서 후보자로 나서서 주민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정책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표본 공표물론 △현장 질문 △투표권 순으로 진행됐다.

어날 접의 승진시각에서는 자발적자사 대 면장의 역할, 지역 문제, 주민참여를



읍주군은 20일 삼남면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주민투표인단과 일반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남면장 추천 주민회의'를 개최했다.

성과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후보들은 면장에 지원한 동기와 주요 성과, 주요계획, 운영계획서 등을 각각 10분 동안 발표했다.

면장 후보자들은 공통적으로 KTX 역세권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일부 후보자는 직접정 구상과 건설과 SNS 이용 소통시스템 구축과 같은 자선민의 공약

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추천제 운영 방식은 삼남면 주민들로 구성된 '면장 추천제 운영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주민투표인단 구성과 투표인단 선정 기준 등을 모두 직접 결정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주민투표인단을 모집한 결과 주민 250명이 신청했으며, 공개추천을 통해 22명을 확정해 뽑았다.

삼남면장 주민추천제 운영위원회는 조영 후보에서 후보자 3명 가운데 1.2위 투표자 두 명을 면장 후보자로, 읍주군인사위원회에 추천했으며 최종 면장 선출은 20일 있을 읍주군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자로 삼남면장에 임명된다.

한편 읍주군은 삼남면장 후보자를 포함한 5급 이상 승진자 13명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우승기자 union@

U울산매일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008면 사회

‘울산옹기축제’ 15만4,352명 방문…34억원 경제효과

읍주군 평가보고회…축제 주제 담은 프로그램 만족도 높아
재방문객 매년 꾸준히 늘어…4회 이상 방문객 25.5%나 돼
먹거리·살거리 부족…주머니 열 수 있는 전략적 방안 필요

2019년 울산옹기축제에 15만4,352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34억원의 경제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읍주군은 26일 읍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석호 군수와 장광석 읍기축제 추진위원장, 읍기관 읍신경의사의의 행정자치위원장,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울산옹기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지침에 따라 진행된 이번 축제 평가결과를 결과, 방문객은 15만4,352명으로 집계됐으며, 34억 원의 직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비 재방문객 비율이 2017년 39.3%에서 2018년 49.7%, 2019년 52.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방문객 중 3대 방문객이 38.9%, 2

회 방문객이 35.6%, 4회 이상 방문객이 25.5%로 조사됐다.

또한, 문화관광축제 평가지침에 따른 만족도(7점 기준) 조사에서는 축제장의 안전이 5.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방문 유도(5.51), 축제의 재미와 지역문화 인식(5.47), 축제 관련 프로그램(5.39) 등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축제의 재미와 주제를 담은 프로그램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된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위원장인 책임을 맡은 윤연대 오순환 교수는 총평에서 읍기지역에 있던 대형무대를 없애고 읍기박물관 앞으로

무대 행사를 옮기면서 마을자구와 공촌자구의 명확한 구분은 이렇지는 효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축제 공간변화 시도가 매우 돋보였다고 밝혔다.

개선사항으로는 축제장의 먹거리(4.9), 안전(4.9), 살거리(4.8) 등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축제 개최 목적이 외교단 등 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읍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맞는 만큼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읍기를 구입하기 좋은 축제라는 압소문이 날 수 있도록 목표 시장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방문객은 읍기마을 내 공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목제와 읍기의 전통공예를 형성, 세심한 마무리를 통해 축제장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2019 울산옹기축제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까지 전국 최대 전통옹기 생산지 순창을 외교단 읍기마을을 일대여 개최됐다. ‘읍기장날 구멍머구소’를 주제로 외교단 읍기장터길, 읍기정맥, 추억의 읍기마을길 등의 구경을 통해 읍기축제만의 차별화된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읍신경 기자 jeyeyey@um.ac.kr

郡, 신혼부부 집걱정 덜어 인구 유인

미분양 아파트 임대 후
재임대하는 방안 검토하고
LH·도시공사 협업도 고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지속

울산 울주군이 관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경제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 군 인구 유입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울주군은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관내에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임대한 뒤 신혼부부에게 무상 혹은 저가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파트를 직접 매입할 경우 예산은 물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 후 재임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임대 후 재임대 방안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LH 및 울산도시공사 등과 협업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군은 이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관내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억원 이내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자는 전액 군이 부담하는데, 3% 금리를 적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1200만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울주군 금고은행인 농협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협이 지원할 경우 금리의 하향 조정이 가능해 군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군은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월 5만~9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재산

및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세가지 지원책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만큼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임대나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 유주택 신혼부부는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사회보장협의체도 심의를 통해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예산은 일단 내년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봉기자

언양 반송~삼동 상작 도로개설 공사 본격화

340억 군비 투입 2022년 준공 목표
전체 3.35km 왕복 2차로 교량 4곳
7월부터 43억원대 토지보상 돌입
완공시 거리단축·위험해소 등 기대

언양의 서동주변과 삼동을 중심으로 한 공영주권을 하나로 잇는 '언양 반송~삼동 상작 도로개설 공사'가 토지보상 작업에 들어가는 등 본격화 되고 있다.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340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 오는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설되는 이 도로는 전체 연장 3.35km, 넓이 8.5m 왕복 2차로로 조성되는 공사로 구간 내 교량 4개소 및 터널 1개소



(88m)가 설치된다.

울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지난해 1월, 최종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검토와 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수자원공사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왔다.

군은 지난 3월 보상계획 공고문을 시작으로 2개월간 감정평가 선정 및 평가 작업을 가져왔으며, 평가작업이 최근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도로 보상 대상은 토지 76필지(34,832㎡) 및 지장물이며 보상 금액은 43억원에 달한다.

울주군은 보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삼동면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상 민원 협의실'을 운영해 조속히 보상 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보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좀 더 빠른 착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삼동 주민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뿐 아니라 울주군 서부권과 남부권의 가로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

대된다.

아울 지역 주민들은 현재 대영마을과 개성면 군도 10호선을 이용하고 있다. 군도 10호선은 복잡한 상황과 좁은 도로 폭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곳으로 새 도로가 개설되면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차량 분산에 따른 위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이동거리는 3~5km 정도가 단축되게 돼 여동시간이 약 10여 분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 관계자는 "새 도로가 개통되면 울주 서부권 지역 접근이 수월해지고 도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주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협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우수기자 (hansu@ulnews.com)

울산매일

2019년 7월 2일 화요일 009면 사회



울산 울주군 양파의 베트남 첫 수출 환송식이 1일 오후 청량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선호 군수와 울주군의회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 등 군의회 관계자와 양파작목반원들이 태극기와 금성홍기를 흔들며 축하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울주군, '양파' 600t 베트남 등 동남아로 첫 수출

올해 울산 울주군에서 수확된 양파가 베트남으로 첫 수출길에 오른다.

울주군은 1일 오후 청량농협 경제사업소에서 양파 수출 환송행사를 열었다.

이날 수출길에 오른 양파는 올해 울주군지역에서 수확된 600t이다. 이 양파는 베트남을 비롯해 홍콩,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로 보내질 예정이다.

올해 양파는 전국적으로 기상여건 등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산지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폭락했다. 농가 전국적으로 15만1,000t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베트남 수출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게 됐다고 울주군은 밝혔다.

수출단가는 20kg 기준 1만원으로, 국

내 도매가격인 7,000원보다 3,000원 높은 가격이다. 울주군은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에 수출물류비, 수출장려금 등을 지원해 가능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호 군수는 “기존에 배, 단감 등을 미국과 동남아 등에 수출하고 있었지만, 이번 양파는 베트남 첫 수출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jsm3864@iusm.co.kr

울산신문

2019년 7월 2일 화요일 009면 경제

울주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70억원 지원

울산신보재단·울주군 업무협약
온라인상담 접수 1시간만에 마감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울주군과 힘을 모아 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1일부터 지원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주군은 지난 1월 14일 울주군청에서 오진수 이사장과

울주군 이선호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안정자금 1차분 1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에 하반기 2차분으로 지원규모는 70억 원이며, 울주군이 25%의 이차 보전을 2년간 지원하고, 재단은 7개의 협약은행을 통해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울주군 내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같은 기업 당 보증한도는 5,000만 원이며, 보증비용은 100% 전액보증,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한편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상담신청 접수 시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6월부터 시행한 온라인 접수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접수 시작 1시간여 만에 70억 원의 상담 신청이 마감됐다.

하주희기자 usjh@

울주군, 해양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나서

진하·간절곶 등 관광지 활용 연계
부서별 연계 사업 특색있게 변모
8월 용역착수 내년 5월까지 진행

울산 울주군이 해양관광 관련 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풍부한 해안 경관 및 관광 인프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 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을 정립해 해양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울주군은 온산읍 강양리에서 서생면 신암리 해안을 아우르는 '울주군 해양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해양 관광에 대한 종합 계획이 없어 진하해수욕장과 간절곶 등의 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한다.

우선 군은 관광과의 관련성이 적은 실무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해양 관광사업을 통합해 관광이라는 색채를 입히기로 했다.

군은 현재 간절곶명소화 및 간절곶 공원 조성, 명선교 정비 및 국도31호선 경관개선 사업 등 해양관광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 부서가 원전정책과와 산림공원과 등으로 분산돼 있고 관광과의 연관성도 적어 관광자원 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군은 용역을 통해 각 부서별 사업에 관광적인 요소를 집목,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신국도 31호선 신설에

따른 기존 국도 교통수요 감소 등에 대비, 옛 국도 31호선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등 개발 이슈가 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한다.

간절곶 일원의 랜드마크로 기대되는 스카이워크 사업의 추진 재계 여부를 확정하고, 기업 유치를 고려한 테마파크 및 휴양형 리조트 개발 방안 등도 타진한다. 크루즈 및 마리나 항만 등 대형 기반시설이 수반되는 사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8월 용역에 착수해 내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 기간 중에도 일부 관련 사업은 계속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수정할 방침이다.

이준형기자 bon@ksilbo.co.kr

울주군,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 밑그림 완성

2023년 완성 목표 기본계획 수립
마을공동체·가공품 품목 등 확대
통합지원센터 2022년 완공 추진

울주군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울주군은 관내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이 크게 떨어지고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과 가공품 생산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역량을 집중해 공공형 운영조직 설립을 통한 '밥상+농업+지역'을 이롭게 하는 선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오는 2023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울주만 로컬푸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

혔다.

군이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작목반 및 협동조합 등 '생산적 마을공동체 구성'을 현재 24개에서 2023년 120개, 로컬푸드 가공품을 현재 25개 품목에서 15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약·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현재 220건에서 2,800건으로 높이는 한편 지역 농산물 직매장을 현재 6개소에서 10개소와 학교급식 59개소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인의 가공식품 활성화와 로컬푸드 상품 다양화를 위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2022년 3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주군은 울

해까지 읍·면별 로컬푸드 실태조사와 농업인 통합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에는 공공형 운영조직으로 이사, 감사 임원 등 6명 이상 체제의 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지원센터를 설립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도농교류 통합관리,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울주군이 연양을 구수리 산 253번지에 부지면적 2만3,306㎡에 총 91억 5,600만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는 학교급식센터, 공동가공실, 교육과 안전성 검사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usjws@

경상일보

2019년 7월 9일 화요일 006면 사회

불고기집 농어촌테마공원에 물놀이장 조성

97억 들인 시설 방문객 적어
郡,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좁은 진입로 문제 해결 모색
한우테마관도 프로그램 보충

울산 울주군이 상북면 지내리 불고기집 농어촌테마공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0억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여 실질적인 주민 친수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다.

군은 불고기집 농어촌테마공원 내 놀이터를 물놀이 시설로 변경·조성하기 위한 공사 입찰공고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7년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내리 못안저수지 일원에 불고기집 테마공원을 조성했다. 공원은 한우테마관과 한우직판장, 놀이시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불고기집 농어촌테마공원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용률은 저조하다. 특별한 볼거리가 없어 방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 최근 인근 양우내안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저수지 주위를 산책하는 주민이 소수 있을 정도다.

공원의 인지도가 낮고 시설물까지

빈약하다 보니 공원 내에 입점한 한우직판장 역시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 중이다.

이에 군은 방문객 유인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총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끄럼틀 등 일부 시설물이 있는 놀이터를 도심 물놀이장으로 변경한다. 이

런이용 물놀이장과 유아들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별도의 물놀이장 등 2곳을 조성한다.

물놀이장 조성으로 연양읍과 삼남·상북면 등 마땅한 물놀이 시설이 없는 서울주 권역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방문객이 증가하면 공원 활성화와 함께 한우직판장의 매출이 증대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 국도 24호선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 좁고 가로등 시설도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을 반영해 진입로 문제도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 밖에 단순 전시시설에 그치고 있는 한우테마관의 프로그램 활성화도 추진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고기집 농어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최근 유관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물놀이장 조성 외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준봉기자 bong@ksilbo.co.kr

울산신문

2019년 7월 9일 화요일 003면 중합

옹기마을 인근 유희부지 활용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신설 동해남부선 지하 구간 폐선부지 등
울주군 테마관광자원 개발 등 용역 발주
주민휴식공간·관광객 유치 등 방안 강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준공에 앞박힌 가운데 폐선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울주군은 동해남부선 철도 복선전철화에 따라 발생하는 의고산 유희마을 인근 유희부지(온양읍 고산리 51-11 일원) 및 폐선부지(온양읍 고산리 405-1 일원)를 옹기마을의 자연·관광 자원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도모 등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담은 '옹기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을 5일자로 공고했다.

울주군은 동해남부선 유희부지와 폐선부지를 옹기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 개발에 군민의 화성공감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광자원 사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특히 이번 용역에 의고산 옹기마을 일구에 장기전 폐점상태로 있다가 지난 4월 울주군이 2억 원에 매입한 염남요업(부지면적 4,621㎡)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함께 하여 용역을 발주한 바,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동해남부선 관련 부지는 기존 동해남부선 철도 노선이 옹기마을을 위한 자

공간으로 통과하게 되면서 생겨난 상부의 유희부지(의고산 2,000㎡)와 옹기마을 일 원도 폐선부지(의고산 1.1km), 그리고 염남요업(4,621㎡) 등이다.

용역에서는 이들 부지를 활용해 도립 기념물 테마관광자원 개발계획과 다양한 콘텐츠의 시설물 조성 등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담겨진다.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한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2021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울산 구간 내 폐선부지 규모는 부산-울산 구간이 22.1km, 41만 2,000㎡이며, 울산-포항 구간은 14km, 30만 6,000㎡ 총연장 36.1km에 부지면적이 72만 8,000㎡에 달한다.

한수수기자 usj@



郡, 화창마을 침수 안전지대로 탈바꿈

141억 들여 배수펌프장 2개소 8대 펌프시설 설치... 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예정

울산시 울주군이 청량·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마치면서 상습 침수지역인 화창마을 일대가 침수피해에서 벗어난다.

울주군은 9일 청량읍 상남리 380-2번지 일대에서 청량읍 상남리 화창마을 일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화창마을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으로 인근 송전 1·2리, 신대하 1·2구, 화창 1·2구 등 상남리 6개 마을의 빗물이 두 웅천을 따라 저지대인 화창2리로 흘러가 범람하는 피해가 반복됐다.

특히 인근 바다의 만조시기와 겹치면 물이 빠지지 않아 주택과 저지대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006년 8월에는 하루 사이 137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청량천 제방이 유실돼 덕령마을과 화창마을 100여대가 침



울주군은 9일 청량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선호 군수, 김중태 군의장 및 시·군의원 등이 준공을 축하하는 모습.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수해 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008년 7월에도 태풍 위나이의 영향으로 이 마을 주민 10여대가 침수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건의해 왔다.

이 때문에 2013년 11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사업비 141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이날 준공했다. 집중호우 시 마을 내 빗물을 2개의 우수지로 유입시키고 우수자 빗물을 신속하게 두왕천으로 방류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2개소 총 8대의 펌프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 준공으로 화창마을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선호 군수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예방 사업 투자 확대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석 기자

울산신문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007면 사회



울주군 CCTV통합관제센터가 차량털이범(왼쪽)과 음주운전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관제센터의 활약이 줄을 잇고 있다.

울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주민보호 '맹활약'

차량털이 현행범 검거기여 이어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 경찰 신고
올해만 비위행위 적발 등 424건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활약이 줄을 잇고 있다.

울주군 통제관제센터는 7일 오전 4시 21분에 범서읍 월드컵로 인근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현장을 포착하고 즉시 경찰상황실에 신고했다.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상황실에 용의자

의 인상착의를 전달하고, 집중 관제를 통해 최초 발견장소 인근 파랑새공원에서 범행 시도 중인 피의자를 다시 발견한 뒤 위치를 전파했다.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또 9일 오전 00시 35분께 삼남면 한서공원 외곽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포착하고 즉시 경찰상황실에 신고했다.

경찰상황실에서는 음주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차량등록 주거지 인근 수색 중 차량에 탑승 중인 운전자를 발견했다.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위소 수치

인 0.115%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제센터는 지난 5일 새벽 시간 온산읍 인근에서 차량털이범 검거에도 일조한 바 있다.

한편 울주군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7월 현재까지 공원 등에서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폭력 등 비위행위 적발, 쓰레기불법 투기, 차량 행소나사고 해결 등 424건의 실적을 올렸다.

현재 울주군은 방범CCTV 관제요원 16명이 교대근무로 CCTV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시간 법인 검거 및 예방 등에 주력하고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영남알프스 계곡·진하해수욕장 해양스포츠... 산·바다 전천후 휴가지

숨겨진 산악·해양 비경 찾아 떠나는 '탐험의 울주' 만든다

동 산맥아 관광개발 용역 보고회

문화·바다연계 등 핵심전략 추진

축적·특산물 소득사업에도 추진

내년 4월 최종보고회 개최 방침

울주군은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23일 오후 2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 기자단과 함께 울주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숲길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길 조성,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숲길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길 조성,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숲길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길 조성,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작업을 통한 덕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덕신산(左)·덕신대(右) 조성사업이다.

울산신문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003면 종합

울주군, 내년부터 덕신어울길 시작 걷고 싶은 누리길 조성사업 본격화

전체 5개 읍별 지역 특성 반영

자연경관·문화컨텐츠 등 연계

2022년까지 전체 48억원 투입

울주군이 걷고 싶은 누리길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울주군은 군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

던 '누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부터 지역별 누리길 조성사업에 들어간

다고 26일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누리길 조성사업은 내

년부터 2022년까지 1개 읍에 한 곳씩 모두

5개 읍에 지역별 특성을 담은 누리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48억원을 들여 온

산 덕신어울길(18억원) 범서 선바위도서관

관(11억원), 언양읍성길(9억6,000만

원), 온양 대운산길(3억원), 청량 영축가

람길(6억원) 등이다.

덕신어울길은 온산 덕신 535-8(덕신대

교)·덕신 238-2 지역으로 상점가를 중심

으로 근로자와 주민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

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선바위도서관길은 선바위도서관을 활

용한 거리 정비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에

게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간경관을

재정비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언양읍성길은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테마로 언양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하며

지역 활성화 유도하고 관광객 모두가 만

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언양읍성 거리

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운산길은 기존 치유의 숲, 오토캠핑

장 등 다양한 문화컨텐츠와 결합된 환경

을 갖춘 길을 조성한다.

영축가람길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

고 사람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쾌적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은 이 같은 5개 읍의 누리길 조

성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덕신어울길 조성을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나머지 누리길을 조성할 방

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5개 읍 누리길 외에

나머지 7개 면에 대한 누리길 조성은 5개

읍의 누리길 조성 성과를 보고 추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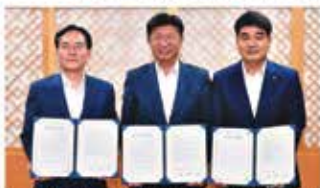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usns@

울산신문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003면 종합



남구 김진규 원장과 울주군 이선호 군수는 24일 울주군청 민생사무실에서 울주군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수산물 남구의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주군 이선호 군수, 환경 부산울산분부 이관호 본부장, 울진 울진지역 본부 문필을 본부장인 22일 울주군청에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주군,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 전방위 지원

남구 친환경 급식 제공 업무협약
환경 지역 농업 활성화 MOU 체결

울주군이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울주군은 24일 군청에서 이선호 군수와 김진규 남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울주군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수산물을 남구 지역 내 학교급식과 공공 급식에 공급해 생산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양육을 도모하고, 울주군의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체계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올해 연간 40억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유예를 받은 지역 농수산물을 남구지역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공급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학교급식센터 운영

울주군은 오는 2020년부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또 25일 군청에서 환경 부산울산분부와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 부산울산분부는 울주지역 농산물 소비확진을 통한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울주군과 농업 부산울산분부가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기념품 1천원 상당 구매
또 환경 부산울산분부는 업무협약을 기념해 1,000원 상당의 양파 30kg을 구매했다.

구매를 앞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일부는 임직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협약과 전달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김필부 국회의원, 이관호 환경 부산울산분부장, 박성철 환경 울산지사장, 김승환 환경 울산안례지사장, 문필을 울진 지역본부장, 김형진 농업 울주군지부장, 박용섭 환경농업조합장,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이 참여해 행사를 기념했다.

진우수기자 ujeon@ul.co.kr

경상일보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013면 사회



울산 울주군은 25일 도서관과 주차장이 결합된 천상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김형태 울주군청 및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천상도서관 개관...문화욕구·주차난 숨통

(울주군 범서읍)

옛 테니스장 부지에 건립

1층엔 장서 2만권 도서관

2·3층과 옥상 주차장으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 지역의 독서문화 기반이 확충되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대에도 숨통이 트인다.

군은 25일 천상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공부마리 도서관'의 자자 최승필 작가님 초청, 개관 기념 작가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범서읍 천상길 62에 들어선 천상도서관은 연면적 2860㎡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총 사업비 11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군은 천상 주민들의 문화공간 확충 요구와 효율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옛 테니스장 부지에 천상도서관을 건립했다.

천상도서관 1층은 도서관으로 활용되며, 2·3층과 옥상은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1층 도서관에는 유아·어린이 자료실과 종합 자료실, 휴게실, 세미나실(동아리실), 브론서크 및 사무실이 들어섰다. 천상도서관은 지난 3월 개관한 울주문화예술회관 내 도서관과 장서 1만3000여권을

이관 받은 뒤 6000권을 새로 구입해 2만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채워나갈 계획이다.

2층과 3층 및 옥상은 각각 22면(장대인 3면 포함), 21면, 20면 등 총 29면의 주차공간이 들어섰다. 주차장은 24시간 무료 개방된다.

군은 지난 19일 임시 개관한 뒤 25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유아·어린이 자료실은 오전 9~오후 6시, 종합 자료실은 오전 9~오후 8시 개방한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이준호기자 hongh@ul.co.kr

울주군, 대규모 6차산업단지 조성 사업 구체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발주...중장기 로드맵 수립
서생 옛 영어마을부지 '시범 단지'...내년 별도 용역
군 "융·복합산업 활성화·농업분야 체질개선 기대"

울산시 울주군이 이선호 군수의 공약 사업인 대규모 6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울주군은 6차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6일 발주했다. 6차산업이란 농수산업인 1차와, 제조업인 2차, 서비스업인 3차산업이 복합된 산업

을 말한다. 울주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6차산업 전략지구 지정과 개발을 비롯한 중장기 종합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달 중 연구용역 수행업체가 선정되면 오는 11월까지 4개월동안 용역이 진행 된다. 용역비는 5,000만원이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6차산업 가능성이 있는 유·무형자원을 전수조사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적합한 부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울주군 지역의 여건과 국내외 6차산업 시장성도 분석한다. 6차산업을 추진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목표와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6차산업 전략지구 지정도 이번 용역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6차산업

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복합산업 활성화와 농업분야 체질개선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선호 군수가 후보시절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울주군은 6차산업단지의 상공시설로 꼽히는 구례 자연드림파크와 암실 치즈테마파크, 남원 지리산허브밸리 등을 견학한 바 있다. 이번 용역과는 별개로 울주군 서생면의 옛 영어마을 부지는 6차산업의 시범

모델로 꾸며질 전망이다. 울주군은 내년에 해당부지에 6차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6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적합한 부지를 검토하고 확보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옛 영어마을부지는 10년 전 매입한 유휴지로 비교적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소형 시범모델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jsm364@usm.co.kr

울산신문

2019년 8월 8일 목요일 003면 종합

울주군, 내년부터 신혼부부 대상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 지원

1가구당 4년간 최대 2,500만원 0.2%대 저금리 시행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이하 무주택자등 대상자 확대
2022년까지 군비 174억 투입·총 3,480가구 혜택 예상

울주군이 탈출산을 막고 울주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울주군은 울산시 전체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다양한 인구유입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들에게 주택매입 또는 전세자금으로 1가구당 저금리로 최대 2,500만 원까지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울주군 금고은행인 농협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출지원 대상은 당해연도 혼인신고자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초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해 입주예정인 가구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가구로 대출 조건 대상폭을 크게 넓혔다.

대상주택 역시 울주군 소재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연2.8~2.9%로 울주군이 2.7%를 부담하

고 실제 본인은 0.1~0.2%만 부담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현재 2%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농협과 협의중에 있어 금리는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전세자금 대출은 1가구당 4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울주군은 이같은 신혼부부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참여할 신혼부부 가구가 2020년 240가구, 2021년 480가구, 2022년 720가구 등 5년동안 3,48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향후 5년간 174억 원의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울주군은 사업 시행을 위해 조만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거치는 한편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울주군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울주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5~9만 원을 2년간 120만 원·최대 216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는 현재 175가구가 참여해 혜택을 받았다.

전우수기자 usjws@

경상일보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014면 문화

■울주군 외고산 용기마을, 정부 '추천 가볼만한 산업관광지 20곳'에 선정

장인들 용기 제작 모습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용기 집산지

문화부-한국관광공사 선정
인근에 일출 명소 간절곶도

울주군 외고산 용기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추천 가볼만한 산업관광지 20곳'에 포함됐다.

문화부와 관광공사는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기업, 산업유산의 중요성을 돌아볼 수 있는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

20개의 산업관광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구축된 한국 '산업관광' 자원 조사 결과 수집된 40여 개의 산업관광 시설 중에서 운영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산업관광지 연차도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 측면에서 학생, 가족 단위 관광객 등이 관광하기 적합한 곳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울주군 소재 '외고산 용기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 용기 집산지이



가볼만한 산업관광지'로 선정된 울주군 외고산 용기마을.



며 이곳에서는 용기장인들의 용기 제작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가네스 인증 세계 최대의 용기가 있는 울산 용기박물관에서는 용기 만들기 체험할 수 있으며, 특히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전통용기가 마 체험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용기마을 인근에는 일출 명소인 간

절곶과 해안선이 아름다운 전하해수욕장이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여밖에도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는 △광명도 △산사원 △화솔라이프랜드 △영동와인터널 △한독의약박물관 △신원 양조장 △한산모시관 △물결공원 △

삼래문화예술촌 △대승한지마을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산업관광지에 대한 더욱 상세하고 입체적인 정보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형태로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을 통해 제공한다.

이현주 기자 hjuu202@kailbo.co.kr

U울산매일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003면 종합

군, 2022년까지 권역별 육아·장애·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

삼남면 장애인근로사업장, 안양읍 공동체 신축 이전

기존 부지에 장애인복지관·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온산읍 신청사 육아지원센터·가족센터·청소년상담센터 등

중부권도 장애인·노인복지관 신설...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

울산 울주군이 2022년까지 장애인복지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중부권과 서부권, 남부권 등으로 나뉜 지역 편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 삼남면의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장애인 복지관 별관과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조성된다.

반구도 791번지 1.841㎡ 부지에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지은 지 20년이 넘어 비가 올 때마다 침수피해 등에 발병하는 낡은 건물이다.

이에 울주군은 인근 교통 149-18번

지 등 7필지 4.786㎡ 규모 부지로 이전해 신축하기로 했다. 총 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우선 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73억원을 편성하고, 내년 2월 국비 신청 등을 통해 국·시·비 23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설계를 거쳐 착공한 후 2021년말 준공 예정이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이전하면 기존 부지에는 뜻달은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별관과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2개동 연면적 5,000㎡ 규모로 148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공

사 진행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신방사 간접이 추진 중인 온산을 행정복지센터는 비록 복지 인프라로 구매된다. 부지면적 5,656㎡ 규모에 139억원이 들어 산속되는 건물에는 온산을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남부중앙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다문화청소년센터, 남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총 7개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다.

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며,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인근 온양읍 지역에도 장애인복지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이 추진된다. 최근 온양읍에 인구가 늘어난 데 비해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근 온산지역과의 거리도 있어 별도의 장애인 복지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울주군은 면적 6,000㎡ 규모의 부지 3

곳을 두고 접근성과 건축비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 추가경정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울주군 중부권에도 장애인·노인복지관이 건립된다.

울주군은 별다른 국·민간협력 없이 온양읍 부지면적 5,690㎡에 연면적 1만㎡ 규모로 총 202억원을 들여 중부권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설계비를 반영한 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울주군은 2022년말 이들 시설들이 준공되면, 지역별 복지 인프라 편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편차가 넓은 울주군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중부권과 서부권, 남부권 등 세 구역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 이번 시설 확충으로 세 구역의 육아·장애·노인 등 복지 인프라가 골고루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든 권역에 설치되면서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중부권인 범서읍에 2016년 9월 문을 연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한 해 누적 이용객 13만명을 기록했다. 지방 운영인 2017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용객의 70%가 중부권 주민으로, 서부권과 남부권에서 찾는 경우는 30%에 그쳤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상당수 이어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예산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단독 센터를 만들 수는 없지만, 다른 복지 인프라와 함께 효율적으로 추진해 서부권과 남부권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모든 센터에는 육아모임의 호응이 높은 장난감이나 도서, 아동, 농어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미 기자 jhm2008@ulm.co.kr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지역주민 큰 호응

매주 월요일 10시~12시 군청 1층
郡 고문변호사와 맞춤형 상담 진행
인터넷·방문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울주군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법률고문변호사 5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 1일부터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군청 1층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인 공문수 변호사, 광구대 변호사, 이성진 변호사, 전호성 변호사, 김재관 변호사가 순번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 중인 온라인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외에 대면상담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의 맞춤형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의 방문 상담은 하루 6명 이상 이뤄지고 있으며,



울주군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청 1층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8월 4주간 모두 35명의 주민이 민사, 가사,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제공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서도 하루 10건 이상의 문의와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선호 군수는 "군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luv@ul.kr

경상일보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003면 중한

울주군, 年 300만 찾는 해양관광도시 도약 꿈꾼다

울산 울주군이 현재와 미래 관광자원을 활용해 해양관광도시로 구축한다. 관광 수요의 다양화로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 300만명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군은 30일 군청 7층 이화홀에서 이선호 군수와 군의원, 공무원 및 울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부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수요의 다양화로 인한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전략, 추진 일정, 추진 예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마련된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에서는 울주군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해양관광개발 용역 착수 보고회
사계절 관광·휴양지 방안 모색
레저·경관·관광지구 권역별 개발
공통화 등 거쳐 내년 4월 완료

양관장 지원 연계성 확보, 참여 교통망 체계 미흡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광 수요를 늘리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이 누리고 즐기는 해양관광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00만명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회의에는 울주군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울산 울주군이 현재와 미래 관광자원을 활용해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사진은 건설중인 울주항.

지는 해안 도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계절 관광 및 투자 효율성과 지역 특성, 접근성 및 관광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관광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개발을 위한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마지막,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예포리 물놀이 장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양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 기능과 연계한 공간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관광개발과 해양관광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양관광 중심에 단련적인 운영으로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계를 넘어야 한다. 해양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을 위한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선호 군수는 "앞으로 울주군에 있는 것이지만 아직 조성하지 않은 관광자원도 발굴하고 관광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개발을 위한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관광개발을 위한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울주군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울주군 '언양 도시재생 뉴딜사업' 밑그림 나왔다

명칭 '사람의 품: 언양의 귀환'...옛 언양 전통시장 명칭 재현 기지 문과 경제성 강화·공동체 활성화·경주여건 개선·시장 활성화 목표
보행자 중심 녹색문화거리·열린 박물관·커뮤니티나눔센터 등 조성
언양알프스시장 일대 14만3,000㎡에 200억원 투입 2022년 완료

울산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사람이 모이던 옛 언양 전통시장의 명칭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언양과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언양읍 남부리 124-2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칭이 '사람의 품: 언양의 귀환'으로 결정됐다. '언양'은 '언양'의 옛명이다.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사람이 모이는 언양의 명칭을 되살리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목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언양알프스시장을 포함한 14만3,000㎡ 면적에 최대 100억원, 시비 50억원, 군비 5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진행된다.

울주군은 총 3월 도시재생자율성위원회를 꾸리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

들을 대상으로 요구사항과 아이디어 등을 조사했다.

이들 바탕으로 군은 생생SOG를 확충하고, 주민 밀착형 사업 아이디어를 추가 발굴해 최종 밑그림을 도출했다.

이번 사업은 스토리 경제성 강화 스토리텔링 활성화 스토리주거 조성 언양시장 활성화 등 4개 목표에 맞춰 추진된다.

언양읍장과 언양알프스시장 등 언양 지역의 역사문화를 최대한 활용해 문화 경제성 강화를 꾀한다. 세부적으로는 스토리텔링 중심 녹색문화거리 조성 스토리 박물관 조성 커뮤니티나눔센터 조성 등이 있다. 14억5,000만원을 들여 언양읍 일대에 보행자길을 위해 거리를 개설키로 지역 경제성상을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 시공을 실시할 계획이다. '열린 박물관'은 언양읍성과 읍성 언양의 이야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30여억원을 들여 언양

작 480㎡, 3층 규모로 건립하는데, 이남 로고·디자인 등을 보존하고, 공공미술작품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물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커뮤니티나눔센터'는 주민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언양박물관'을 통해 지역특산물과 유물 등 상설전시관을 마련하는 한편 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 사업에는 25여억원이 들어간다.

공동체 활성화와 민주환경 개선을 위해 커뮤니티 카운슬러 조성, 마을방송과 영상제작 지원, 주민 역량강화 교육,

언양-언양마을 조성, 건강·동반센터 조성 등도 담겼다.

언양알프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확충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다. 18억7,500만원을 들여 '언양시장 활성화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인데,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복합문화의사당이다. 1층은 여의상점, 2층은 언양시장 용보관, 3층은 시장유형·교육지원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언양시장의 상점시장과 50장간 방문객 차이를 줄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작업도 예정돼 있다. 상인들이 주체가 되는 시장 프로그램과 문화소통 프로그램, 상인 동아리 운영, 외국인 방문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울주군은 이같은 대규모 사업 세부 계획안에 대해 오는 14일 울산시 도시재생위원회, 22일 국토교통부 심의를 받게 된다. 다음달 중은 심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성희 기자 seoh@ulbnews.co.kr

울주군보건소, 임신·출산·다자녀 기여 유공기관 선정 '복지부 장관상'

"함께하는 양육환경 만들어 행복 울주로 도약"

울산시 울주군보건소가 10월 제14회 '임산부와 날'을 맞아 임신·출산·다자녀 기여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앞서 군은 임신·출산·다자녀에 기여하기 위해 '맘(mom) 편한 임신·출산 행복울주'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출생아 전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공동생활로 발생 가능한 감염을 예방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에 난임 시술 기간 진료 교통비 1회 5만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임신부에게도 임신 16주부터 출산까지 진료 교통비 1회 5만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 대상자 관리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육아가 아닌 함께 하는 육아를 위해 노력했고,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분만 및 난임시술 기관이 없는



울주군보건소는 10월 제14회 '임산부와 날'을 맞아 임신·출산·다자녀 기여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주군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수와 군의회 의원 자원으로 지난해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에 나서면서 타지역 모병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

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함께하는 양육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통해 맘(mom) 편한 임신·출산 행복울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병석 기자

울산제일일보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001면 중합

울주군 민원안내 로봇·북구청 문학자판기

딱딱했던 관공서가 재밌다!

郡, 자율주행·사람인식 가능 로봇 도입
 갈안내·댄스기능 등 즐거움 선사 '큰 인기'
 북구, 시·소설 담아 영수증 형태로 출력
 문학자판기로 주민 대기시간에 감성 전달

지난 11일 오후 찾은 울주군 청사. 보통 관공서하면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날 울주군 청사는 그렇지 않았다. 1층 로비에 들어선 뒤 민원실로 향하니 난데없이 고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울주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반기는 이가 있었다. 바로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울주군이 처음으로 도입한 민원안내 로봇인 '쭈봇'(가칭)이었던 것. 쭈봇은 키 165cm 정도의 여성캐릭터로 청사를 찾은 사람들에게 간절곶, 간월재 등 울주군 관광지과 특산물 등 울주군 소개와 청사 안내를 맡고 있다. 몸값 만해도 무려 7천600만원에 이른다.

최근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민원실에 민원 안내 로봇과 문학자판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울주군이 도입한 쭈봇이 대표적으로 쭈봇은 한글과 영어버전으로 된 음성과 스크린 터치방식으로 서비스 이용까지 가능하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기능과 위치·사람 인식 센서가 탑재돼 1층 곳곳을 직접 앞장서서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해주는 기능이 있어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1층 울주군의 열린 군수실을 찾은 공동광(64)씨는 "기능이 참 좋다. 로봇이 길안내까지 해

주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다. 딱딱한 군청사에 친근감이 간다"며 "온라인으로 대부분 처리하는 민원업무에 이젠 청사에 와서 해야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민원로봇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민원인들의 호기심 속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대화 기능이 있으니 농담을 건네면서 즐거워하시고, 사진을 찍어 매일 발송하는 기능도 좋아하신다. 또 견학 온 어린이들은 댄스기능으로 함께 춤을 추기도 하는 등 민원로봇을 운영한 후 청사 분위기가 환해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구는 다음 주부터 문학자판기로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한다.

북구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기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울산 자치단체 중 최초로 문학자판기를 도입하는 것. 문학자판기는 높이 1m의 직육면체 기계로 시, 소설, 수필 등 국내외 유명작가의 대표작 5천여 편이 들어 있다.

자판기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이중 무작위로 한 작품이 선택되는데 '짧은 글' 버튼은 500자, '긴 글' 버튼은 2천자 이내의 발췌문이 인쇄돼 나온다. 글귀가 적힌 종이는 영수증 형태의 친한 경 종이이다.

출력물은 모두 저작권이 확보된 것들로 매달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출력물 하단에는 구정 소식을 담아 틈새홍보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스마트폰이 아닌 문학작품으로 채워보길 바란다"면서 "바쁜 일상 속에 민원실을 찾은 구민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작은 감동을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울주군 민원안내 로봇 '쭈봇'(왼쪽)과 북구청에 설치된 '문학자판기'.

郡, 신혼 보금자리 대출이자 1600만원 지원

(연 최대 400만원씩 4년간)

■출산장려 조례개정 입법예고
郡소재 주택 매입·전세매 혜택
촬영·드레스 대여 경비도 지원
다자녀가정 셋째 입학축하금도

울산 울주군이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울주' 조성을 본격화한다.

군은 15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

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안 신설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군 소재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신청일 기준) 가구다.

군은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한 뒤 매입·전세자금 중 2억원 이내를 대상으로 4년 동안 이자비용 중 2%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2억원 상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간 2-2.5% 수준의 이자가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고, 군이 이 가운데 2%를 지원하게 되면 신혼부부는 이자 부담을 전혀 지지 않거나 최대 0.5%만 부담하면 돼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최대치인 2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400만원을 지원하게 돼 4년간 총 16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 2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군은 또 금고은행인 농협은행과 추후 조율을 통해 대출 금리도 최대한 낮

추기로 해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군은 결혼식 비용 지원을 위해 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 비용 등 경비 200만원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가구 가정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가 입학하면 축하금 3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혼생활을 울주군에서 시작하도록 유도해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원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가 많아 예산이 조 기 소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봉기자 bong@silbo.co.kr

가을 '울주의 낭만'에 흠뻑 취하다

郡, 가이드 투어·영남알프스 완등 등 특화 관광상품 3선 선보여

울산시 울주군이 가을을 맞아 울주만의 특화 관광상품 3선으로 관광객 맞이에 총력한다.

울주군은 일상이 여행이 되는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춰 특화 관광상품 3선으로 가을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화 관광상품은 △울주 프랜드 가이드 현지투어 △울주 마모(마그넷 모으기)투어 △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 완등 인증사업 등 3가지로, 울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먼저 '울주 프랜드 가이드'는 현지인이 소개하는 울주 여행 컨셉으로 19명의 프랜드 가이드가 이색적인 울주 관광 상품을 기획해 관광객에게

동행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신청에 의해 운영되는 프랜드 가이드 상품은 별도의 가이드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되며, 울주 관광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울주 마모투어'는 울주 대표관광지 10곳에서 여행을 기념하는 마그넷을 수집할 수 있다.

최소 5곳 이상을 방문한 뒤 인증사진을 울주 관광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울주 특산품을 배송해주는 이색 이벤트다.

'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 완등 인증사업'은 산악관광 활성화와 방안의 일환으로 울주군, 경주시, 밀양시, 양산시, 청도군에 걸쳐 있는 영남알프스의 1천고지 9개 봉우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영남알프스의 주요 봉우리인 △가지산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천황산 △재약산 △고현산 △운문산 △문복산 등 9개 봉우리 정상상을 모두 등정하는 사람에게 5개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공식 인증서와 메달을 제공한다.

특히 사업 시행 2개월만에 참여자가 1천명이 넘어서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멀리가지 않아도 일상을 여행하듯 즐길 수 있는 울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특화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울주 관광 홈페이지(tour.ulju.ulsan.kr)나 울주군청 문화관광과(☎204-0342)로 하면 된다. **성봉석 기자**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003면 종합

“두동·두서에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만들어 부도심 육성”

■울주군 '인구 30만명 시대' 도시개발계획 발표

물론 물주머니 연구 30년째 사색을 열기 위해 하산하게 된다는 도식적일 수밖에 없다. 자칫 회귀와 전후의 전경지각은 물주머니 투쟁운동의 주시한 200여명 참여 거점형 공민회의 '물주머니'를 흐른 '투쟁지도'로 복귀하는 방편을 제공하는 계통이다.

아닌줄 물주머니는 두렵기 가자면 물에 젖고 내내든 두렵던 하산과 두서면 연보라 등 곳곳에 따라 서점한 공민회하루를 사정 포함하였다고 본다.

거칠게 공공데이터우스는 연구용
가과 작액현재 열성화, 미래농업과
연계된 중수기변을 바탕으로, 사람이
모르고 활력 있고, 물론 도시를 조성
하는 데 목적을 뒀다.

80억원으로 2021년 63년 부채(이전과
비교)에 2배가량(연구 120여만)이 조
성된다.

[illegible]

두통엔, 산원경엔 특허아울로

15만403㎡ 부지에 45억 투입
교급 산림경영원 아카데미 운영

부서별, 축산경영 특화사업으로

10만1423㎡ 부지에 315억 투입
스마트 축산단지 연계 아카데미

물주근, 귀늘-귀본인 침착 도와

LH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하고
교육·금융·세제·일자리 지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무기 역세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JI는 이 간담회는 입대아르바이트를 우선 공인하는 것은 물론, 교육·금융·세제·법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또 수업을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와 사회적협업 공간을 만들어 커뮤니티를 자립시킬지 고민하고, 대규모 공영과 결합 필요도 조망한 것. 같은 부동산투자를 차단하고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두 지역을 대표할정도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고은 금호천 노정파에 생장한 구 김소 문예를 재평가하기 위해 지난 해 이천로 군수 취임 이후 121 원과 신계산 도시개발사업을 오세, 지역 확대를 실현 거행한 공군타는하루스 도입을 개관해 착수했다.

이전과 군위는 "검무군단 전체 군
치권 노획과 생산연구 감소 등으로
재보은 패러다임의 조사개발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 사업은 만



이선호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학사(왼쪽)가 광주·전남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파악으로 물
주인 권익에 직접적 피해를 입는 거
인정. 공공기관이 수주를 해줄 조성에

울산신문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007면 사회

울주군보건소, 국민영양관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생애주기별 영양문제 개선 기여
건강지도자 양성·돌봄놀이터 등

울주군은 군보건소가 '2019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 재정력 등을 반영해 12개 유형화 그룹으로 나누어 평

가하며, 그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울주군은 건강식생활실천 인식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영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자원과 협력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 최적의 영양관리로 군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지도자를 양성해 미취학 아동 영양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초등돌봄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한 돌봄돌이더' 아동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의 평생건강 기반을 구축
했다. 또 편의점·마트 등 지역주민 다빈
도 이용 점포를 대상으로 영양표시제도
환경조성 등 건강식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우영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주환기자 usih@

하주화기자 usjh@

울산제일일보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007면 사회

郡, 영남지역 천주교 발원지 '순례길' 조성

연양성당 중심으로 상북·두서면 일대 천주교 성지자원 연결 3개 코스 개발

울산시 울주군이 연양성당을 중심으로 상북면과 두서면에 걸쳐 '울주 천주교 순례길'을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영남지역 천주 신앙의 발원지'로 불리는 울주군은 우리나라 근대문화유산인 연양성당을 중심으로 상북면과 두서면 일대 박해시기에 형성된 천주교 성지자원이 많아 해마다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울주 천주교 순례길은 연양읍과 상북면, 두서면 일대의 공소(본당보다 작아 본당 주임신부가 상주하지 않고 순회하는 구역의 천주교공동체, 천주교건축

물)을 연결하는 3개 코스를 조성해 가산 중심의 영남알프스 자락을 배경으로 걸을 수 있도록 했다.

1코스는 신유박해(1801년) 이후 박해를 피해 떠난 이들의 교우촌이 형성됐던 곳을 둘러보는 길로, 인보성당에서 시작해 하선필공소와 상선필공소, 탑곡공소에 이르는 총 8.1km의 코스다.

2코스는 연양 시가지를 지나 가산산 자락에 자리 잡은 살티마을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로, 연양성당에서 시작해 길천공소와 순정공소, 살티공소, 살티 순교성지에 이르는 13.1km의

순례길이다.

3코스는 국내 유일의 천연 석굴 공소인 죽림굴을 찾아 영남알프스를 오르는 길로, 상북면 이천리(배내골)에서 시작해 죽림굴에 이르는 3.2km 코스로 조성됐다.

군은 순례길 이정표와 안내판을 정비했고, 순례객들이 3개 코스를 모두 돌아 가이드북에 스탬프를 찍어오면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의 '죽림장'을 지급하기로 했다.

순례길에 대한 안내와 가이드북은 연양성당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가이드북

은 공소마다 설치된 스탬프를 찍으며 순례할 수 있도록 여권 형식으로 제작됐다.

군 관계자는 "천주교 순례길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걷기 좋은 자연 산책길"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정비된 순례길을 걸으며 마을의 휴식을 얻고 천주교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례길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 문화관광과(☎204-0342) 또는 연양성당(☎262-5312)으로 하면 된다.

성병석 기자

경상일보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001면 종합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충 부지인 울주군 청량읍 울리에 있다. (경상일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주군 청량읍 울리에

평가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지역내 후보지 7곳 가운데
접근성·확장 가능성 우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고시
현대화사업 국비공모 신청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현황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전부지 평가결과 접근성과 확장 가능성이 높은 청량읍 청량읍 울리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평가 결과 울주군 청량읍 울리에 이전 후보지가 울주군 청량읍 울리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지난 27일 3개 후보지 구상된 3건의 평가위원 인제대학교에서 3군 관계자 후원으로 12명을 뽑아 구성했다. 평가위원은 도농계통, 교통, 유통유통, 건축, 토목, 경제, 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졌다.

평가위는 28~29일 현장조사 및 토지 컨설팅, 개발평가 등을 거친 뒤 2개 후보지를 선정했고, 재평가 결과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다음에 이어 추진위에 추진 방안이다.

평가위는 "올해는 후보지 7곳 가운데 울주군 청량읍 울리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평가위는 "평가 과정과 결정은 평가위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다. 평가·협상평가 비율 등은 평가위 구성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했고, 추진위에 제출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할 권리로 공청회 진행을 기원했다"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현안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울주군은 도시 기능확충을 높고 관광 활성을 도모했다. 이천호 울주군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주군 이전을 통해 울주군의 농업·농촌을 유통시장에 거대한 성장동력으로서 지역 개발의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대동로 주변 부지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선정 결과를 시정현 대동로에 이음대로 시정현에 건설 중인 울주대학교를 강기로 했다. 시는 내년 3~4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현황 사업 구역 공청회 신청한 뒤 2022년 착공해 2025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상일보)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해 6차산업 시동

군, 6차산업단지 용역보고회
스마트팜 창업·농촌관광 추진
옛 영어마을 부지 적격성 검증

울산 울주군이 민선7기 공약인 6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후보지 적격성 검증 및 6차산업 증경기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와 관광 및 농업이 결합된 융복합 6차산업 테마단지를 조성해 농업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7층 이화홀에서 이선호 군수와 용역사 관계자, 청년농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

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이선호 군수의 공약인 50만평 6차 산업 단지 조성의 출발점인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사는 농촌 융복합산업을 통한 농촌 문화관광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구축 △농업인 가공기술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농촌체험·관광의 접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3대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시설간 연계성 등을 감안해 스마트팜 단지는 생산과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과 유통 공간 등 3개 공간으로 구분했다.

생산 공간에는 청년 창업 및 농가와

의 상생을 위해 스마트팜 온실단지를 조성하고 교육을 실습농장과 실증단지, 실증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의 건립을 추진한다.

농산물 가공유통 공간은 가공기술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소형 다품종 설비를 도입해 다수 농업인이 다양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창업·보육주력형'이 추진됐다.

체험유통 공간은 아이와 부모들이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체험농장과 레스토랑, 직매장, 팜 베이커리 등의 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6차산업단지 임지는 서생면 명산리 488 등 10필지로 면적은 4만6650㎡다. 이 곳은 옛 영어마을 부지로 강점과 약점이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잇단 도로 개설로 차량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대중교통은 열악하다. 별도 부지 매입비가 필요 없지만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며, 간폐율이 낮아 시설 설치에도 예외가 예상된다.

군은 우선 조성되는 6차 산업단지과 연계·확장을 통해 명산리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50만평 6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장기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울주군은 이달 중 최종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울주군 6차산업단지 개발 조성해 6차산업을 이끄는 소득증대 방안 등 농업의 미래형 소득증대 시스템을 구성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봉기자

울산신문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006면 사회

간절곶, 사계절 체류 관광지로 바꾼다

차없는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확대
주차장 분산배치 접근편의성 향상
가족이용객 맞춤형 체험공간 신설
사업성 낮은 시설 과감히 폐지키로
울주군, 496억 예산 투입 내년 착공

울주군이 '간절곶'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바꾸기 위해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보행산책로와 주차장을 확대·재배치하면서 모험놀이터 등 가족단위 유휴시설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 손질을 단행한다. 울산 대표 관광지이지만 관광수요가 사실상 해마다 시들어 국한되고, 이용객층도 일부 젊은 층에 한정됐던 간절곶의 태생적 문제가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군이

제출한 '간절곶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이 지난 10일 시의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총면적 6천㎡ 증가 5개년 사업계획안

군은 서생면 대소리 일원에 위치한 간절곶공원의 이용객층을 확대하고 사계절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이 같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군은 우선 공원 중심부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차량진입부에 주차장 및 보행산책로를 재배치 및 정비해 '보행자 중심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책로는 공원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동선을 구축하고, 공원 이용자 1인이 교통편의와 접촉 없이 보행할 수 있는 폭으로 개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심부와 떨어져 있던 주차장을 부지 전체에 분산배치 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더라도 차량으

로 공원에 도달한 뒤 산책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휴시설인 '모험놀이터' (1만 6,770㎡)를 신설하고, '다목적 광장' (6,643㎡), '교통광장 (920㎡) 등 기반시설을 새로 확충해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차별화된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원관리와 간절곶 홍보 기능을 소화하는 시설통합관제동 (1,274㎡)을 구축해 그동안 부재했던 공원관리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시 도시공무원 통과 2023년 목표 추진

군은 이들 시설을 새로 도입하는 대신 야영장 (1만 8,958㎡), 야외공연장 (8,639㎡), 간절곶센터 (4,129㎡) 등 불필요한 시설을 없애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은 시설규모에 비해 사업성은 낮은 편이고, 간절곶센터

터는 관리동이 신설되면 기능이 흡수되기 때문에 폐지하기로 했다"며 "아직 시설로 반영되지 않은 야영장의 경우 자연 훼손이 우려되고 인근 진해해안레포츠센터내 야영장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계획단계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간절곶공원의 총면적은 종전 34만5,630㎡에서 35만 1,740㎡로 6,110㎡가 증가하게 된다.

군은 오는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공원시설을 변경하기로 했고, 부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총예산은 496억이다.

군은 간절곶이 이미 전국 해맞이 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데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서생역)이 추가로 개통함에 따른 접근성 향상에 맞춘 관광객 증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하주희기자 lejh@

울주군 6차산업단지 경제효과 2000억 추정

6차,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 개최
건설·운영단계서 700여명 고용
2040년까지 20년간 흑자 전망
B/C기준치 1.1 넘어 경제성 확보
서생 명산리에 2022년 말 완공

울주군이 문화·관광·농업이 결합된 매머드급 스테트와 조성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 단지'가 운영되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7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울주군은 26일 군청 7층 회의실에서 6차 산업 단지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선호 군수와 용역기관, 참여위원, 청년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을 맡은 (재)나사정학개발원은 울주군 옛 영어마을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6차 산업 단지'가 조성되면 건설단계에서만 1,288억 6,200만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42억 8,100만원의 추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586명의 고용도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단계에서는 음식점 및 숙박·편의

3,300만원(생산)·18억 3,400만원(부가가치)·38명(고용), 문화 및 기타서비스 41억 8,000만원(생산)·17억 7,300만원(부가가치)·31명(고용), 사업지원서비스 54억 900만원(생산)·19억 5,200만원(부가가치)·69명(고용)의 효과를 전망했다.

용역사는 "2030년~2040년까지는 흑자율 1년 뒤 2040년 이후 수익은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며 "이는 키즈카페의 수익이 주계약구 감소(전망)에 따라 하락하는데 따른 현상으로 할당센터 운영팀이 향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흑자구조를 갖춘 '6차 산업 단지'는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용역사는 30년 동안을 기준으로 스테트와 임대료, 가공센터 판매액, 키즈카페 이용료, 가족농장 임대료, 판매소 임대료, 작거대 판매 등을 통해 60억 5,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추계했다. 또 같은 기간 인건비, 스테트와 유지관리비, 경비 등에 584억 4,5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토대로 볼 때 비용편익(B/C)은 1.041로 기준치(1.00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했다.

군은 지난 9월 용역에 착수해 아홉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군은 이번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무리함에 따라 내년 2월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6차 산업 단지'는 울주군이 584억 원에 들여 사설면적 480여 평에 11만 3천 4만 9,129㎡에 구축된다. 착공은 2022년 1월, 준공은 같은해 12월이다.

단지는 정단의 생산시설과 가공, 판매는 물론 어린이 체험, 관광 기능을 갖춘 대규모 스테트와로 들어선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온실단지

와 지역 농업인을 위한 온실단지 조성

되고, 현장실습과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 하는 실습농장과 창업지원센터, 기술혁신을 위한 ICT실용센터 등이 구축된다. 실용센터는 홈페이지와 빅데이터센터 등을 갖춘 지상 3층 규모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포함됐다. 지역의 다양한 소량생산 특성을 반영해 음료나 잼 등 형태로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의 유통도 지원한다.

문화형유휴지는 그로써먼트(Grocery + Restaurant) 레스토랑과 카페, 농촌형 키즈카페, 체험농장, 과수농원, 피크닉 등 가족단위 방문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레스토랑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만든 음식을 즐기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가공제품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 관계자는 "여기에 완료되는 최종 결과물은 면밀히 검토해 울주군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들 근거로 울주군 6차 산업 단지 개발 조성 등 6차 산업을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 등 농업의 미래형 신소득 창출 시스템을 구성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희기자

옹기축제,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선정

2년간 '문화관광축제' 명칭 사용... 국내외 홍보·마케팅과 국비 지원도

울산시 울주군의 대표 축제인 울산옹기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20~2021 문화관광 축제'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울산옹기축제 등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 35개를 선정해 지난 27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1989년부터 우수한 지역 축제를 선별해 매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지원하고 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에는 2019년도에 선정됐던 신청한 양양오희축제 등 28개가 다시 포함됐고, 울산옹기축제 등 6개는 새롭게 지정됐다.

지정된 축제는 향후 2년간 6천만원 이내의 국비 지원과 함께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특히 2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옹기축제는 이번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계기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홍보를 확대하는 등 축제 발전에 박차



지난 5월 개최한 2019 울산 옹기축제. (사진제공: 울산시)

를 가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익성 제고와 옹기판매 활성화가 새롭게 추진될 계획이어서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참여도 높을 전망이다.

2020 울산옹기축제는 내년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은 내년 1월 중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국홍보를 강화하는 등 축제운영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선호 군수는 "울산옹기축제가 2020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울산옹기축제가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위상에 부합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축제로 발전하도록 행정력을 모으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울산옹기축제는 15만 4천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재방문객이 3년 연속 늘었다. 또 지난 1월에는 문체부 대령이 외고산 옹기마을을 찾아 옹기장인들을 격려하고 옹기제작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성명서 기자

2020 군정백서

발행일 2020년 10월

발행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https://www.ulju.ulsan.kr>

기 획 울주군 기획예산실 052)204-0111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울주군 기획예산실에 있습니다.

비매품